DECEMBER/ 2021
Vol.25

EMMANUEL

임마누엘 [구원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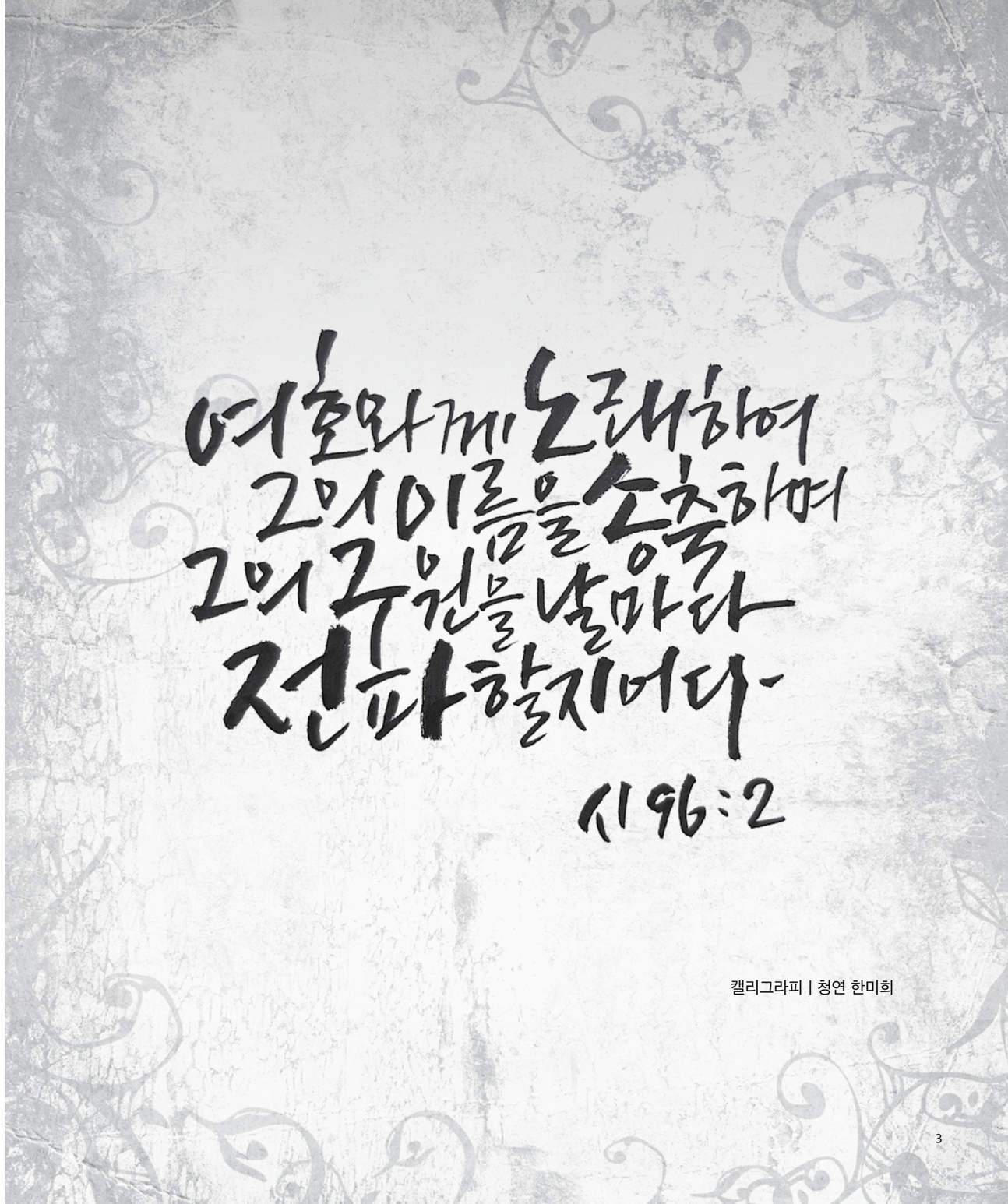
특집 VIP를 위한 릴레이 금식기도에서 초청예배까지

- **시대를 분별하라** -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선교
- **2021 단기 선교를 돌아보며**
- **Family Connect**를 통해 연결되고 회복되는 가족

- **담물카페는 담임 목사님과 소통의 자리입니다**
- **인터뷰** - EM 심민보 목사님

하나님은 빛이시라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 요한일서 1:5-7



캘리그라피 | 청연 한미희

Contents

목차

02 **구원호를 열며**

말씀의 창

담임목사 칼럼 - 영혼 구원의 본질을 붙들려면

나를 세우는 말씀 - 핑계를 찾고 계시는 하나님

나를 살리는 찬양 - 내 삶의 원동력

12 **행전 스타일**

믿음의 선진들 - 로제타 홀

시대를 분별하라 -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선교

2021 단기 선교를 돌아보며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시공간을 초월하는 복음의 능력

와이너리를 선교지로 바꾼 하나님

TRUST FALL

아낌없이 주시는 주님

자녀와 함께 전하는 복음

인턴선교사 - Exciting Moment for Mission

24 **빛과 소금**

Family Connect를 통해 연결되고 회복되는 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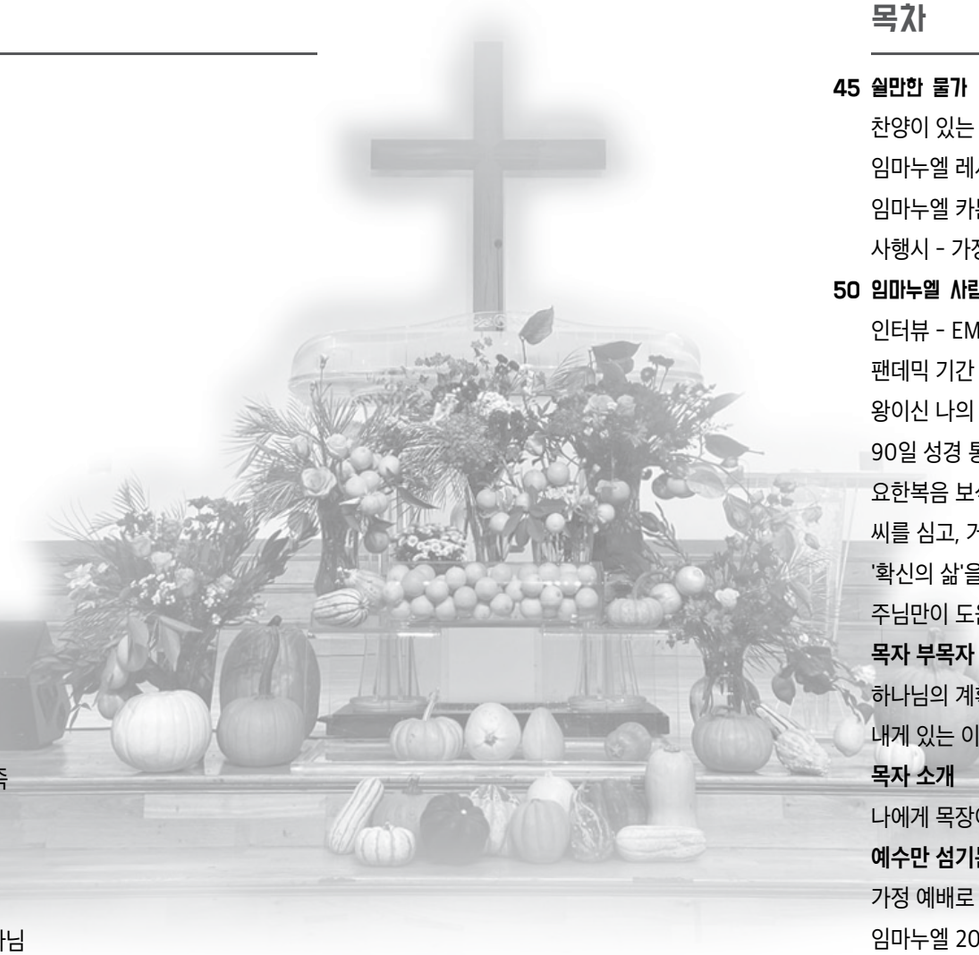
'담물카페'는 소통의 자리입니다

특집 **VIP를 위한 릴레이 기도부터 초청 예배까지**

VIP 전도를 위한 빛과 소금의 역할

VIP 세례 간증 - 약함과 실패도 다시 쓰시는 하나님

사진으로 보는 임마누엘



목차

45 **실만한 물가**

찬양이 있는 풍경 - 교회여 일어나라

임마누엘 레시피 - 함박 스테이크

임마누엘 카툰

사행시 - 가정 교회 / 제자의 길

50 **임마누엘 사람들**

인터뷰 - EM 심민보 목사님

팬데믹 기간 동안 지켜온 자녀들의 구원 간증

왕이신 나의 하나님

90일 성경 통독을 마치며

요한복음 보석을 캐다

씨를 심고, 거두시는 이는 하나님

'확신의 삶'을 통한 감사의 회복

주님만이 도움되고 주님만이 친구 되는 목장

목자 부목자 헌신 예배 간증

하나님의 계획하신 시간

내게 있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목자 소개

나에게 목장이란?

예수만 섬기는 우리집

가정 예배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2020-2021 연혁

영혼 구원의 본질을 붙들려면

팬데믹의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는 2021년에도 변함없이 임마누엘지를 창간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영혼 구원의 해'로 함께 지키는 올해의 상반기까지도 우리는 함께 대면으로 모이지 못하는 어려운 형편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좌절하지 않고 많은 성도님께서 여전한 열정과 헌신으로 한 해를 아름답게 섬기고 계십니다. 잃은 영혼을 구원하여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많은 눈물과 기도로 한 해를 신실하게 섬기고 계십니다. 글을 쓰는 오늘은 'VIP 초청잔치'에서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기도하며 책상에 앉았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주의 일을 감당하시는 많은 분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지난 18개월 동안 비대면으로 모이는 목장 모임이 얼마나 힘이 들었을지 공감이 갑니다. 드문드문 VIP 가정에 들고 가던 반찬 그릇은 또 얼마나 많았을까 하는 생각으로 흐뭇한 미소가 피어오릅니다. 마스크 쓰고 불편한 호흡을 내쉬며 얼마나 많은 대화 속에서 예수님을 알리고자 애를 쓰셨을지 애틋한 마음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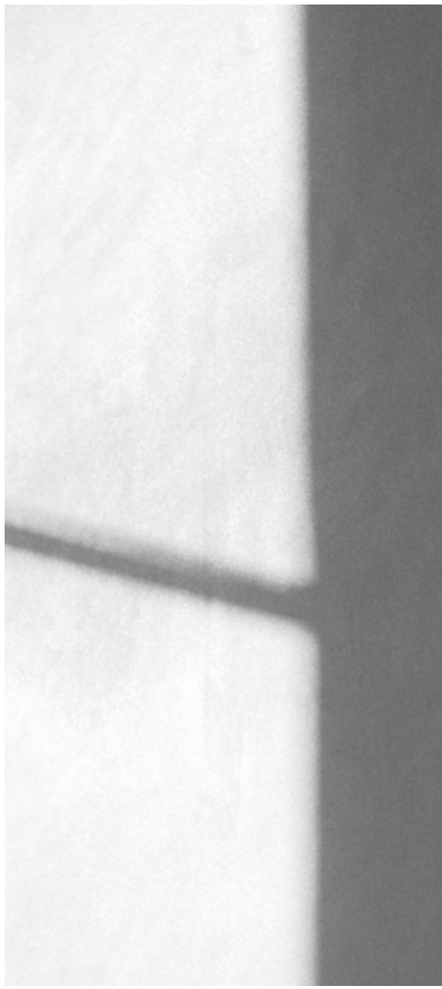
주님께서 이 모든 수고를 은밀한 중에 기억하고 계시다는 사실로 여러분들께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마 6:4)는 말씀을 기억하며 구제하고 기도하며 영혼을 위해 복음과 착한 행실로 계속해서 섬길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교회의 본질이며 최고 우선순위에 놓여야 하지만 교회에서 너무 자주 듣는 진부한 구호(cliche)일 수도 있기에 우리 마음의 온도가 쉽게 달구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클리셰가 주는 위험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계속해서 구령의 열정을 간직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저의 경우를 예로 들면 예수님을 생각하고 깊이 묵상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는 생각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나는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 잃은 아들을 되찾는 아버지의 비유를 생각하며 주님을 생각하고 마음에 품는 일 외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흔아홉 마리가 한 마리와도 같은 가치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한 드라크마가 다른 아홉 개의 동전과 같은 가치에 있다고 믿지 못하면, 집에 남아서 일을 잘 하는 큰아들이나 무례한 태도로 집을 나가버린 둘째 아들이나 다 같은 사랑하는 자식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그 한 사람을 생각하며 그 많은 수고를 들일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순종을 떠올려야 합니다.

"이 작은 자 중의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마 18:14)는 말씀을 기억하며 올 한 해 남겨진 열매를 잘 거두시는 우리 임마누엘의 모든 가족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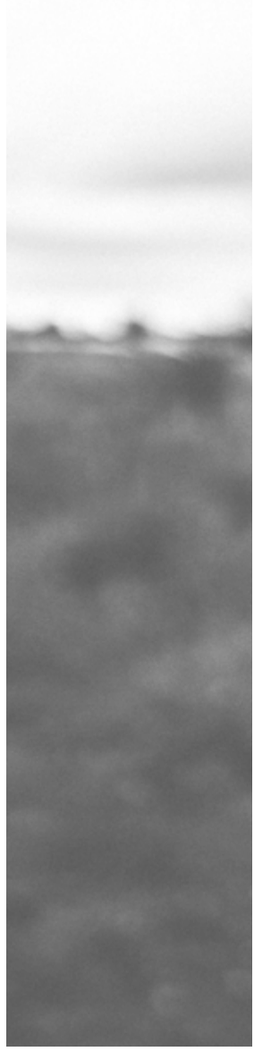
글 | 박성호 목사



핑계를 찾고 계시는 하나님

8/1/2021, 주일. 집.

어제 기도하며 이런 생각이 들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 보겠다 하고 있었더니 정말로 일이 하나씩 해결되었다. 회사 부품 수급 문제, 서진이 수업료 문제, 그 외의 하루하루 처리되어야 했던 것들. 불과 몇 주 전까지도 한 발짝 내디딜 때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이상한 일들이 일을 힘들게 했는데. Every step that I take, there is 똥이었는데. 그런데 왜 나는 하나님께 감사가 적을까? 마치 당연히 되어야 할 일인 것 같고, 하나님께서 당연히 해 주셔야 될것 같고, 그러니 뭐 별로 정말 감사하다 그런 마음도 그리 크지 않고. 어찌보면 그리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부모님께서 어떤 것 해 주셨다고 매번 눈물로 감사를 표하지는 않으니까. 그런데 더 생각해 보니 내가 하나님을 신뢰해 보자 하고 가만히 있었던 시간이 하나님을 신뢰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실상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하나님 신뢰라는 핑계를 찾았기에 그냥 그 뒤에 숨어 버린 것 같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그렇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음에도 "신뢰해 보겠습니다" 라는 그것을 핑계로 하나님께서는 일을 해결해 주시기 시작하셨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려고 내게서 핑계를 찾고 계신것 같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러신 것 같다. 내 마음이 내 말처럼 깨끗하지 못하다는 것 다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나 신뢰해 보겠다고 했지, 신뢰 한다고 했지" 하시면서 준비해 두신 좋은 것을 주시는 것 같은 느낌.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하므로." (에스겔 22:30)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신 좋은 것을 주실 핑계를 찾고 계시고, 심지어 하나님을 막아서서 심판하지 않으실 핑계를 제공할 사람을 찾고 계신 분이다. 멀리, 또 가까운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며, 하나님, 왜 저런 사람들을 그냥 두세요. 왜 일이 이렇게 되도록 보고만 계세요. 공의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요 하고는 했다. 당연히 나는 하나님의 큰 계획을 알지 못하고, 내가 그들을 오해하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누군가가 그들을 위한 중보 기도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한번 더 기다리실 수 있는 핑계를 제공한 것 일 수도 있겠다. 나를 향해서도 비슷한 일이 반복되고 있을 것이고.

하나님, 저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보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 하는 자 되도록, 그 신뢰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도록 저를 도와 주세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좋은 것 을 사람들에게 또 저에게 주실 핑계를 하나님께 만들어 드리는 제가 되도록 저를 도와 주세요. 아멘.

글 | 민경진 장로 (신앙위원회)

내 삶의 원동력 ☺

찬양이란 '내가 이 세상에서 천국 살 듯 살 수 있게 해 주는 것' 입니다. 감사하고 즐거울 때는 찬양하며 기쁨이 가득해 천국의 시간을 느낄 수 있었고 힘들 때는 찬양을 부르며 괴로움을 기도로 바꿔주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찬양은 제가 삶을 살게 해주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찬양으로 받은 은혜가 너무 커 교회에서 찬양팀 보컬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박자도 목소리도 부족하다고 생각했지만 돌아보니 제 인생의 반은 다양한 찬양팀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헌신하고자 하니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찌라'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대학교 1학년 때까지 7년 동안 기도했던 것에 관해 하나님이 'No' 하시며 동시에 주신 찬양입니다. 오랫동안 기도했기 때문에 거절의 응답을 하셨어도 내려놓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집착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제가 안쓰러우셨는지 찬양으로 응답하시면서 제 안에 원망이나 아쉬움 없이 한 번에 내려놓게 하시며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셨습니다. 또, 방언 기도를 거부했던 제게 주신 찬양도 있습니다. 청소년 시절 성령의 불로 방언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이후 방언으로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산상 기도원에서 뜨겁게 기도하던 제 머릿속에 순간적으로 마귀가 주는 방언에 대한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자연스레 방언을 주저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방언을 찬양으로 바꾸시며 '금과 은 나 없어도…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라는 찬양을 주셨습니다. 일분일초 안전하고 세심하게 저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찬양을 주시며 악한 것으로부터 저를 보호하셨습니다.

결혼 후 가끔 부부싸움 후 예배의 자리에 서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연약한 모습으로 찬양을 불러야 할 때 찬양으로 용기 주시며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도 경험했습니다. 마음속에선 '죄인인 제가 어찌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어찌 다투던 입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 할 수 있습니까?'

되뇌는데 하나님은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그리고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이렇게 응답하시며 예수님의 보혈로 예배의 자리에 설 힘을 허락해 주시는 경험도 했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생긴 아이의 존재로 인해 기뻐하고 행복해했을 때에도 그리고 유산하며 낙심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 불편했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저에게 찬양으로 응답하시며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내 고통의 눈물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할 때 살아갈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두 아이의 엄마인 저는 일로 인해 아이들이 3개월 될 때부터 맡겨야 했었는데 아이들에 대한 걱정이 앞설 때마다 공간을 초월하는 성령님을 찬양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상황이 변한 것은 없지만 매일 순간순간 불안이 몰려올 때에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 찬양을 부르며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 아이들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세요.'라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찬양을 통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니 모든 것이 힘들게 느껴지고 두려움은 저를 낙심케 했으며 세상의 소망이 없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의 예배를 받고 싶으시다면서 제 마음에 찬양을 주셨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비록 교회는 아니지만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저를 예배자로 세워 주셨습니다. 찬양을 부르는데 갑자기 마음 끝에서 파도처럼 밀려오는 평안함과 담대함이 저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로 저에게 주어진 상황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부어 주셨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찬양이 저를 살게 해 주었고 지금도 찬양으로 살 힘을 얻으며 어려운 상황이 다가와도 찬양을 통해 이 세상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혜진이는 매일 기쁘고 행복해 보여. 뭐가 그리 즐거운지 늘 흥얼거리고 대화할 때도 노래하는 것 같아. 긍정적이고 넘치는 에너지는 어디서 오는 거야?"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질문합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찬양을 통해 천국의 삶을 살게 해 주신 하나님' 이라고 고백합니다.

글 | 조혜진 (J 목장, 수요찬양팀장)

가장 위대한 발걸음, 조선을 찾아온 여선교사

조선 최초의 여의사 김점동 선교사님과 남편, 그리고 로제타 홀의 자녀들

1. 로제타 홀

1884년부터 1945년까지 조선을 찾아온 1,529분의 선교사님들 중 여선교사님들이 1,114분이나 될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 북미의 여선교사들을 아주 많이 사용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 이면에는 1,800년대 말 미국 교회 전역에 선교적 부흥이 일어났음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사는 것을 특별한 부르심으로 여기는 귀한 선교적 불길을 주의 성령께서 미국 전역에 불같이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선두지휘하시는 거룩한 선교적 불길은 미국 최초의 의과대학, 필라델피아에 있는 '펜실베이니아 여자 의과대학'을 다니던 로제타에게도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누구도 주목하지 않던 조선에 의료선교사로 자원하였는데 그녀에게 선교지로 조선을 선택하도록 영향을 준 분이 미국 최초의 여성 신학교 '마운트 홀리 요크대학'의 설립자 메리 라이언이라고 합니다.

"인류에 봉사하려거든 아무도 가려 하지 않는 곳으로 가라."
— 메리 라이언

Rosetter Sherwood Hall

닥터 셔우드 홀은 결핵 퇴치 자금 마련을 위해 크리스마스 씰을 발행했다.
발행한 최초의 크리스마스 씰에는 조선의 상징인 남대문 상징이 그려져 있다.

2. 로제타 선교사님의 열매, 김점동(에스더 박) 선교사님

남편도, 어린 딸도 조선의 복음화에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며 로제타 선교사님은 조선의 복음화를 위해, 의료 선교의 삶을 헌신하셨습니다. 특별히 1890년부터 조선 최초의 여성 전문병원인 이화여자대학 의료원(옛 보구여관)에서 이화학당 학생 5명에게 의학교육을 시작하면서 후학을 양성하여 조선 최초의 양의(洋醫)이자 여의사로 김점동(에스더 박)을 미국 유학 지원을 통해 성장시켰습니다.

로제타 선교사님의 수술 보조를 돕던 조선의 여아, 김점동! 1894년, 로제타 선교사님의 도움으로 볼티모어 여자의과대학을 유학하게 되었으며 조선에서 결혼하여 함께 미국으로 건너간 남편 박유선이 김점동을 박에스더 선교사로 온전히 세운 후 미국에서 짧은 생을 마감하고 로제타 선교사님의 가족묘에 묻혔습니다.

이후 박에스더 선교사(김점동)는 보무도 당당히 조선의 복음화를 위해 조선 최초 여의사로서 로제타 선교사님과 함께 1990년 평양으로 파송된 의료선교사로 볼티모어 의과대학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박에스더 선교사(김점동)는 평양에서 10년간 불꽃처럼 선교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로제타 선교사님으로 인해 선교의 불꽃을 피웠던 김점동 선교사님을 통해 조선의 여성들까지도 도전을 받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제2, 제3의 여성 선교사들로 세워지는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로제타 선교사님은 메리 스크랜튼(Mary F. Scranton)이 설립한 이화여대 의료원에서 의료사역에 힘쓰며 43년간 조선 여성의 건강권 보장에 선구자 역할을 하였습니다. 평양맹아학교(平壤盲啞學校)를 설립하고 점자를 최초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로제타 선교사님의 아들 셔우드 역시 국내 최초 결핵 요양병원 설립했고 크리스마스실 처음 발행할 만큼 조선의 복음화에 귀한 족적을 남긴 선교사님이십니다.

사랑의 빚진 자로 북미에 세워진 우리 임마누엘에도 주의 성령께서 일으키는 귀한 선교적 불길을 통해 우리에게 맡겨준 Bay Area 소수민족들과 아직도 복음을 접하지 못한 미전도 종족 그리고 우리 임마누엘에서 파송하고 후원하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더욱 잘 섬기는 은혜를 간구하며 이 글을 마칩니다.

출처 | 『로제타 홀 일기』 홍성사
정리 | 주은혜 (수요찬양 주방봉사팀장)

NEW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선교

우리는 팬데믹으로 인해 사람들과의 왕래가 위축되고 힘들어진 낯선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은 이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이다.

시대는 다르지만, 우리처럼 비슷한 경험을 했던 다윗과 바울은 어떻게 그러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늘 깨어있을 수 있었을까? 사무엘상 후반부를 보면, 다윗은 사울 왕의 공격을 피해 광야에서 외로움과 두려움의 험난한 시간을 보내야 했다. 비록 엔게디(Ein Gedi) 광야에서 폭포로(예루살렘 산지에서 지하로 흐르는 물이 엔게디에서 터져 나와 작은 폭포처럼 흘러내림) 목을 축일 수 있었지만, 아둘람 공동체가 함께 광야에서 양식을 구하며 자신을 죽이려는 정예 병사들을 피해 사는 삶은 하루하루 가시밭길과 같은 처절한 고독의 시간이었을 것이다.

이 외로움과 두려움의 깊은 골짜기에서 다윗은 자신이 감당하기 버거운 어려움을 호소하며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고, 더 나아가 피난처요 산성이 되시며 목자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믿음의 고백이 담긴 시들을 지어 읊조리며 주님 앞에 깨어있던 것을 볼 수가 있다.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두 구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의 셋집(Rented house)에 거하며 2년 동안 외출할 수 없는 가택 연금의 생활을 지냈다. 이동의 자유가 없이 집에만 머무는 긴 시간을 보내야 했다. 3차 전도 여행까지 하면서 당시의 소아시아와 유럽을 오가며 이방인 지역에서 교회들을 개척하고, 말씀과 기도로 바르게 교회를 세워갔던 바울의 열정이 잠시 식을 수도 있는 시간이었을 것이다. 지금 우리가 보내는 시간과 비슷했다.

하지만 그는 자유가 없이 집에서만 지내야 했던 답답하고 외로운 시간을 개척한 교회들과 성도들을 향한 주옥같은 메시지를 편지(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로 써서 하나님이 택한 성도들의 믿음을 견고히 했다. 더불어 자기의 셋집으로 오는 사람을 모두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가르친 것을 볼 수 있다.

이스라엘의 엔게디 광야에서 자신의 어려움과 위기를 하나님께 호소했던 다윗의 찬송과 기도는 우리가 묵상하는 시편이 되었고, 로마의 집에서 가택 연금 기간 동안 성도들을 걱정하면서 기도하며 썼던 바울의 편지는 신약의 중요한 말씀이 되어 우리의 신앙을 견고케 해 주고 있다. 주님을 향한 호소와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 성도들을 향한 문안과 사랑의 전달,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의 편지,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치는 일들이 팬데믹의 소용돌이 한 중앙에 있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절실히 필요함을 깨닫는다.

손편지 대신 소셜 미디어나 이메일로 안부를 묻고 중보의 제목을 나누며, 화상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서로 격려해 주고 응원해 줄 수 있는 더 나아가 (온라인으로) 간증을 나누며 복음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함께 마음 모아 예배드리는 시대가 열렸다. 또, K-drama, K-pop에 대한 젊은이들의 관심이 높아져 한글에 대한 인기도 커졌다. 이는 한국인들이 선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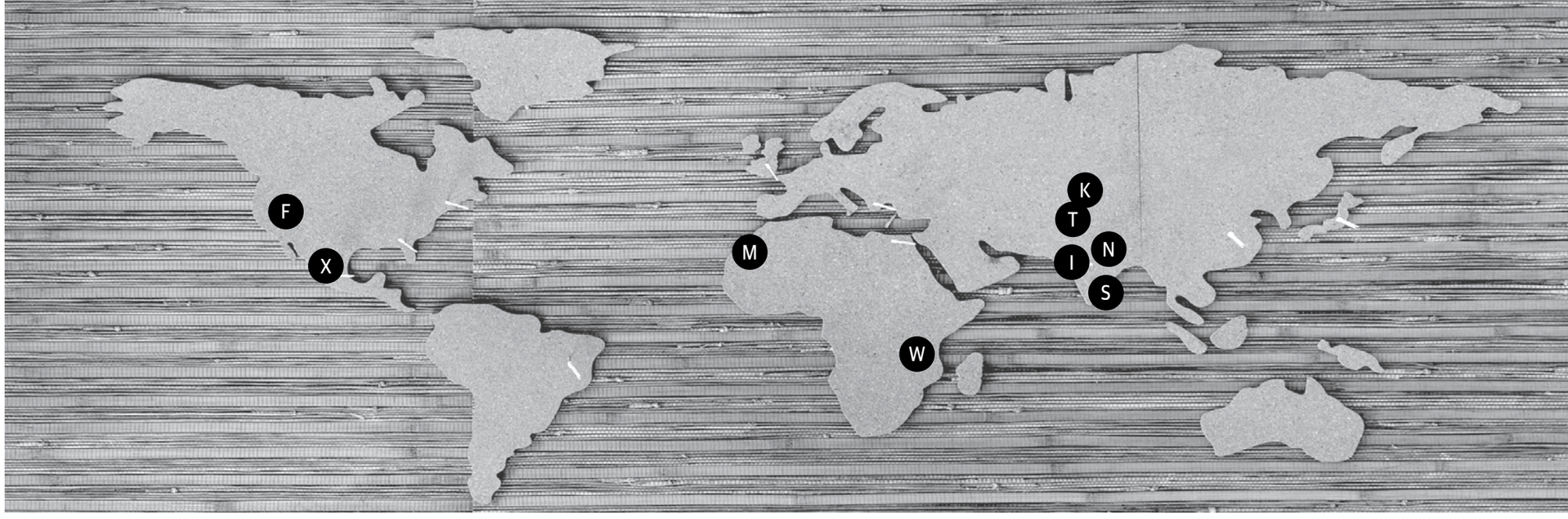
지난 6월 말에 임마누엘 성도님들이 온라인으로 진행한 스리랑카 콜롬보 대학생들과의 예배에 참여하셨다. 서로의 간증을 나누고 현지 언어(싱할라어)로 특송도 불러 주셨는데 큰 감동을 받았다. 온라인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귀한 시간이었다. 이후 8월에는 한국 대학생 선교회(Campus Crusade of Christ)에서 오전에는 티타임을 통해 삶을 나누고 오후에는 현지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시간이 주어졌다. 한국어뿐 아니라 김밥 만드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보여 주며 음식과 여러 문화도 소개해 주었고, 현지 VIP 전도 대상자들에게는 사영리(The Four)를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시간도 가졌다. 복음을 전하는 콘텐츠와 방법이 다양하게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인생의 의미를 찾는 이들이 증가하듯이 팬데믹으로 인해 일터를 잃고 매일의 양식을 찾는 이도 많아지고 있기에, 한 손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른 손은 사랑(쌀, 마스크, 의약품 등)을 나누는 섬김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다. 온라인 콘텐츠를 통한 새로운 시대의 선교 방법 역시 하나님과 이웃 사랑 그리고 복음 전파하는 기존의 선교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믿음의 선진들이 깨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바라고 이웃들을 돌아보며 사랑으로 섬겼던 것처럼, 선교의 새로운 흐름 가운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작은 부분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 이기를 소망해 본다.

글 | Edward Kim (스리랑카 선교사)

2021 단기 선교를 돌아보며

올해는 총 9개의 단기 선교팀으로 구성되었으며 8곳은 온라인으로 1곳은 대면으로 유년부, 중고등부, EM, 한어청년부, KM 전체에서 약 140여 명이 참여했고 2세대 자녀들이 주도하는 온라인 프로그램이 지난해와 다르게 진행되었습니다.



F

- 직접 대면으로 선교 진행
- 어린이 여름성경학교를 3일간 진행했고 약 60여 명이 참여

X

- Mexicali, Chiapas 두 곳에서 사역을 진행
- 일정: 8/2-3 (IT/말씀), 8/21-22 (VBS)
- Chiapas: 신학교에서 목회자 30여 분께 신학 특강, IT 강의
- Mexicali: 여름성경학교 진행, 현지 아이들 80여 명과 부모님 20여 명 참여

M

- 영어교육: 7-15살 영어 초보인 현지인 자녀들. 14명의 현지인 자녀들이 참여
- 코딩교육: 현지 교회, 선교사 자녀들. 현지 도우미로 현지인 5명이 참여. 선교 후에도 후속 강의가 계속되고 있음

W

- 영어교육을 위한 영상 제작
- 현지에서 상영이 가능하도록 TV 등의 장비를 지원
- 선교사님의 지속되는 사역에 영상 사용

T

- 현지 대학생 대상 영어강의 (9-11월). 총 8주간 강의 진행
- 타지 대학의 학생 10명, 교수 10명이 수강함
- 복음을 직접 전하지 못하지만, 학생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으려 함

I

- 6월부터 현지 선교사님과 사역자들과 기도 모임으로 시작
- 단기선교팀이 VBS에서 사용할 찬양과 만들기 영상을 제작
  6월 16-18일, 3일간 여름 성경 캠프 진행하고 130명의 어린이가 참여

N

- 2020년 12월 18일 크리스마스 전도로 시작
- 2021년 2월까지 총 9번의 전도 모임을 위한 현지 사역자와 기도 모임 진행
- 각 모임의 참여인원은 5-10가정으로 평균 70명 정도 참여했고 약 546명의 참여자 중 70-80%가 믿기로 서약하고 세례받음

K

- 1월부터 여름성경학교와 영어 캠프 진행을 위한 현지 선교사님과 기도 미팅 진행
- Summer Camp
  일정: 2021년 7월 5일-2021년 7월 8일
  주제: 하나님의 사랑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사랑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신 아버지의 사랑
  장차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주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 English Camp
  일정: 2021년 7월 9일, 23일, 30일 (총 3회)
  주제: 영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 현지 어린이 50명을 위한 맞춤형 영어 교실
  11월 시작되는 스토리텔링 사역과 연결되어 지속적인 지원

S

- 현지 대학생들과 함께 전도 모임과 예배를 드리고 16명의 학생과 3명의 VIP 참여

팬데믹으로 인해 온라인 선교를 시도하면서 향후 선교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온라인 선교는 장기사역과 방문이 어려운 지역까지 복음 전파가 가능했습니다. 현지 사역자들과 팀원들 전체가 처음부터 함께 사역을 준비하는 선교가 가능하고 복음 전달 이후 심화 과정과 리더십 훈련 등 현지 특성에 맞출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가능해졌습니다. 물론, 시차를 고려해야 하며 직접 만나지 못하고 현지 인터넷 사정과 사회적 여건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현지 사역자들과 선교사님들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는 것 역시 장점입니다.

글 | 우병삼 (단기선교팀 부장)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처음 선교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팬데믹 기간이고 온라인 선교였기 때문에 망설임 없이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I국 N마을에 있는 교회의 여름성경학교를 위한 만들기 영상을 만드는 것이 저의 역할이었습니다. 비록 짧은 만들기 영상이었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 매우 기뻤습니다.

마을에서는 팬데믹으로 인해 여름성경학교를 예전처럼 하기 힘들었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만들기 영상에 의미를 담아 만들었는데 그것은 '당신이 어디를 가던지 예수님은 늘 당신과 함께하십니다.' 였습니다. 색종이로 기차를 만들고 가장 앞칸에는 만드는 사람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칸에는 예수님을 적습니다. 그 기차는 어디로든 갈수 있고 예수님은 어디든 찾아온다는 의미있는 만들기였습니다.

제가 만든 비디오를 I국에 있는 교회의 교인들과 더 많은 어린이들이 볼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현지 목사님은 130명의 어린이들이 그 영상을 봤다고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N마을에 있는 어린이들은 만들기 영상을 매우 재미있어 했는데 만들기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만들기로 그것을 설명할 수 있다는 사실이 감사했습니다.

저는 선교 이후에도 만들기 영상을 본 어린이들이 예수님이 언제든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외로워하거나 힘들지 않기를 계속 기도했습니다. 제가 선교에 한 부분을 담당했다는 것이 자랑스러웠고 I국에 있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교회에 가서 예배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글 | 우수진 (Youth)

시공간을 초월하는 복음의 능력

온라인 선교를 해보자는 말이 처음 나왔을때 이해가 잘 되지 않았었습니다. 선교는 현지에 가서 손을 잡고 머리에 손도 올려서 기도해주는 것이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선교를 하는 것에 대해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또한, 현지 시간과 상황에 맞추고자 일주일에 두 번을 늦은 밤에 진행하는데 분주한 일상 속에서 선교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을지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선교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현지 사역자들과 동역이 시작되며 하나의 장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현지 사역자들과 선교 준비 처음부터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였습니다. 대면 선교의 경우, 팀장님이 현지 사역자들과 소통한 이후 팀원들에게 전달하게 되는데 온라인 선교는 참가하는 전원이 현지 사역자들과 매우 밀접하게 소통하며 현지 상황에 대한 현실감 있는 정보를 통해 선교의 방향을 함께 조율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현지 사역자들과 준비 모임을 하며 제 마음의 자세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선교지에 직접 발을 딛는 것과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선교를 코앞에 둔 시점, 통역과 기술적인 시스템을 체크하는 리허설을 하는데 마음 한구석에서 긴장감이 몰려들었습니다. 걱정이나 초조한 긴장이 아닌 기대와 설레는 것이었습니다. 현지에서 사역하기 바로 전 마음과 정말 다르지 않았습니다. 선교 당일에는 남편이 휴가를 내고 동역자가 되어 제가 집중할 수 있도록 전적으로 지원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온라인 선교가 시작되었지요. 선교에 참석한 팀원들이 미리 모여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각자 있는 곳에서 로그인을 했습니다. 약속한 시간이 다가오며 현지 참여자들의 작은 이미지들이 하나씩 늘어나고 화면이 점점 여러 조각으로 나뉘어 갔습니다. 현지에서는 열 개의 마을에서 참석했는데 어떤 마을은 스무 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있기도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외출이 제한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현지 사역자들이 여러 지역을 찾아가 복음을 전달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열정이 제게 감동이 되어 밀려왔습니다.

현지에서는 10인치 태블릿을 사용했는데 그나마도 부족해서 휴대폰을 통해 접속하는 곳도 있었고, 중간에 접속이 끊기는 곳도 있었으며 연결상태가 원활하지 못한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복음이 잘 전해질런지 걱정을 하기도 했지만, 우리의 생각을 알고 계신 하나님은 참석한 사람들의 입을 통해 '이 시간 위로와 평강을 얻었습니다. 복음 큐브로 전달해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전한 후에는 아픈 사람들을 위해 함께 기도를 했는데 미국과 I국, 서로 다른 공간에 있지만, 모두의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연결되어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I국 온라인 선교는 3개월 동안 매주 2개 지역을 여러 팀이 돌아가며 진행했습니다. 어느 날은 팀원들이 현지 사역자와의 기도 모임으로 알고 접속했는데 현지 사역자들은 선교 모임으로 알고 현지 사람들과 함께 접속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기도 모임을 선교로 바꿔 진행했고 그 자리에 참석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실수도 선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일상 속에서 선교에 집중하기 어려울 것이라 여겼던 저는 오히려 생활가운데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마스크를 비롯해 모든 것이 부족한 I국, 오직 복음만이 희망인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지켜주세요. 은혜를 베푸시고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세요.' 라는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왔고 예수님을 영접한 그들의 얼굴들이 매 순간 떠올랐습니다. 돌아보니 온라인 선교에 대한 의심을 가졌던 저는 선교의 본질을 혼동하고 있었습니다. 안아주고 손잡아주는 것은 부수적인 것이었고 선교의 본질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였습니다. 온라인 선교의 효과를 언급하며 간과했던 것은 바로 복음의 능력이였고, 복음을 전하는 일은 대면이나 비대면이나 그 방법과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10인치 태블릿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은 방법과 공간과 시간을 초월한 어마한 능력이 있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의심했던 저의 믿음이 딱 10인치 태블릿 정도였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그냥 걸어가면 되는 것이 온라인 선교였습니다. 일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각자 마음에 품고 있는 그 땅을 위해 기도하고 온라인 선교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글 | 최미정 (몽골 목장, 새가족부)

와이너리를 선교지로 바꾼 하나님

목자님의 권면으로 프레즈노 몽족 선교가 있음을 알게 되었고, 선교 가기 얼마 전에 겨우 결정해서 다녀왔습니다. 특히 저는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직접 선교지에 가는 것이었기에 선뜻 가겠다고 하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두려웠습니다. '이제까지 재택근무하며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 살았는데, 선교지에 간다고?'

회사 일도 많고, 한국에도 한 번 다녀와야지 하는 여러 가지 이유로 차일피일 결정을 못 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가족들이 제가 못가더라도 저를 빼고 가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제는 선교를 하러 가는 것에 대해 진정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가 기나긴 활동 자제 기간 동안 우울함을 보여오고 있었고, 어디든 여행이라도 다녀오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럼 하와이를 가볼까? 아니면 가까운 곳 와이너리라도 가서 쉬다 올까?' 아, 그런데 이건 아니라는 마음의 찔림이 계속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저희는 아무 데도 가질 못하고 선교를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지에 도착해서 저와 아내가 깜짝 놀라는 일이 생겼습니다. 저희가 운전하여 도착한 선교센터 주소가 바로 와이너리 애비뉴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한참을 웃었습니다.

저와 제 가족들은 선교 가기 전 교회에서 VBS 봉사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교회 청소년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상황이라, 자연스럽게 예배에 참여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 하고 보낸 것이 우리 가족 모두가 참여하는 선교 훈련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어색해하는 저에게 손을 내밀어준 어린아이들과 어울려 VBS 가 무엇인지 처음 알게 된 뜻깊은 봉사였습니다. 제 아이들이 집에서는 게임을 온종일 하던 모습을 보이곤 했는데 교회 VBS 봉사하는 자세를 보니, '와! 예상보다 열심히 잘하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몽족에 대한 조사, 몽 언어 공부, 선교 교육 과정 메이크업, 매일 매일 조금씩 알아가는 과정에서 기쁨이 묻어 나오는 이것 또한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선교지에 도착하고 보니, 훅 밀려오는 더위와 예상치 못한 여러 상황이 생겨나기 시작했지만, 팀장님의 리더쉽으로 유연하게 일정을 조정하고 팀원들 모두 한마음으로 한 곳을 바라보며 나아갔습니다. 다음날부터 선교사님이 주신 100여 개의 주소들을 동네별로 나누고 조별로 차량 이동하여 그 집의 문을 두드린 후, 아이들을 VBS 에 데려가도 되는지 부모님 동의를 받고 데려와, 다시 집까지 데려다주는 삼일간의 일정이었습니다. 각자 선물 꾸러미를 들고, 문을 두드리며 Harmony Korean Church 에서 왔다고 하니, 언어가 잘 통하지 않는데도 아이들을 맡겨 주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을 몇 번 실어다 놓으면 우리 청소년 팀원들이 몽족 현지 사역자들과 어울려 예수님의 이야기를 풀어나갔습니다. 제가 이전에 '제 아이 둘은 언제 철이 들어 완만하게 잘 살아갈까?' 걱정했던 것들을 잊게 해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선교지에서 둘째 날, 그리고 셋째 날이 되어가니 몸은 부서질 것처럼 피곤한데 마음은 더더욱 기뻤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으로 몸의 피로를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이 기분을 언제 느껴봤나 생각해 봤더니 제가 한국에서 입사해서 그룹 연수를 위해 한 달간 공동체 생활에 들어갔던 그때 일정이 이랬던 것 같습니다. 팀을 만들어 밤을 새워가며 행사 준비를 하고, 발표도 하고, 바깥 거리에서 직접 물건을 팔러 다니는 등 아주 오랜 기간 최고라고 알려진 그런 그룹 연수 일정과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선 팀 간의 경쟁 구도가 항상 있었지만 여기에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교회의 공동체 의식이 있었습니다.

이번 선교 활동을 통해 저와 우리 가족은 주일마다 교회는 다니고 있었지만, 그 안에 있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팬데믹으로부터 서서히 복귀해가는 과정에서 동양인 혐오 사건들로 인해 두려움이 있던 저를 선교를 통해 일상 사회 속으로 자신 있게 복귀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모든 팀원분들의 동역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글 | 곽백수 (브니엘 목장, 새가족부)

Trust Fall

혹시 TRUST FALL이라고 들어 보셨나요? 정말 말 그대로 신뢰하고 온전히 믿는 믿음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저는 2021년 프레즈노 단기선교에 함께 참여한 후 온전히 믿고 맡긴 후(TRUST FALL) 하나님의 선함을 경험했습니다.

팬데믹 전에 미용 선교의 마음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교회 선교부에 미용 선교부를 만들게 하셨고 선교지를 선정하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팬데믹 기간이 길어지며 선교에 대한 열정은 식었고 일상에 지쳐있던 중 프레즈노 대면 선교 소식을 들었습니다. 기대와 두려움을 가지고 딸과 함께 프레즈노팀에 합류하였습니다. 하지만 미용 선교의 기회는 없었고 전원이 여름성경학교(VBS)로만 섬겨야 했습니다. 과연 내가 가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잘 모르는 팀원분들과 서먹하게 3박4일을 함께 하는 것도 조심스러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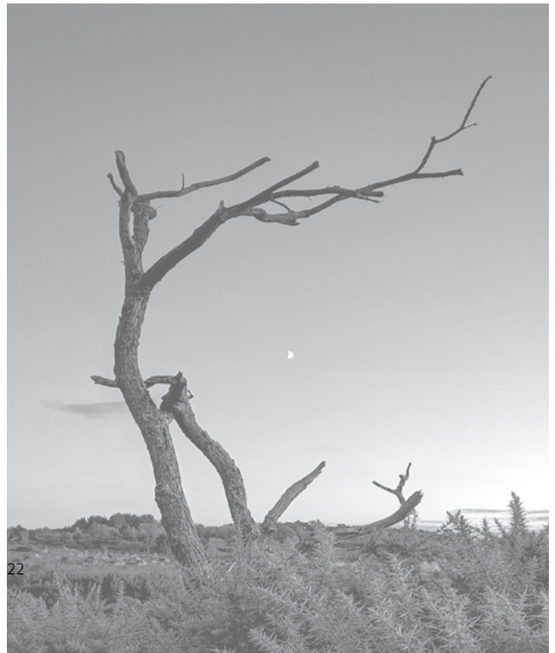
기대 없이 준비에 합류했지만, 곧 선교에 대해 간절해지는 계기가 생겼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백신을 맞지 않은 교인은 선교에 참여할 수 없다는 교회의 공지가 나온것입니다. 프레즈노는 차량으로 이동할 수 있고 여름성경학교로 진행되기 때문에 가족단위로 선교에 신청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백신 맞지 못한 아이들이 갈 수 없게 된다면 저나 부모인 다른 팀원들도 참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때부터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절실히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서로를 위해 매일 중보하며 하나가 되어 기도로 무장하게 되었습니다.

2021 단기 선교를 돌아보며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셨는지 선교를 신청한 모두가 함께 갈 수 있다는 교회의 재공지가 있었고, 저는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선교지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느꼈습니다. 더욱이 선교 출발 전 교회가 전면개방을 하며 임마누엘 여름성경학교가 대면으로 진행되었고 프레즈노 선교팀은 오프라인 훈련까지 마치고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한 치의 오차도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만들기 팀을 맡게 되었는데 '자녀들을 리더로 세우자'는 팀의 취지에 맞게 아이들이 만들기 시간을 이끌었습니다. 더욱 재미있고 풍성한 시간이 되었고 잘 진행이 되었기에 저는 현장에서 차량 봉사와 주방봉사로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현지 사역 선교사님으로부터 미용이 필요한 몽족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그들은 팬데믹으로 인해 미용실을 갈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들의 필요를 아시는 현지 선교사님의 도움으로 그렇게 기다리던 미용 선교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차에는 몇 가지 미용 장비가 있었는데 이는 하나님이 예비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미용 선교 중 제가 부르던 찬양을 현지 여성이 따라 불렀던 장면은 아직도 머릿속에 생생합니다. 그 여성은 8명의 아이를 키우며 오랫동안 머리 손질을 못 하고 있었는데 변한 머리 스타일을 보고 너무 기뻐 제가 부르던 찬양을 따라 했던 것입니다. 그녀의 행복하고 환한 웃음은 평생 제 마음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들은 제 삶을 기쁨과 감사로 풍성하게 변화시켰습니다.



물론 현지 여건상 우리가 준비한 계획이 변경되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상황들로 인해 많이 긴장도 했지만, 팀원 모두 하나가 되어 매 순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 붙잡고 온전히 믿고 맡겼던(TRUST FALL) 시간이었습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생겼고,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동역자가 있다는 것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귀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시간이 퍼즐 조각처럼 맞춰서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이 완성되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선교를 다녀온 이후 그 기쁨이 너무 컸고 더 많은 분이 저와 같은 기쁨을 경험하면 좋을 것 같아 선교부에서 헤어컷 초급반 교육을 맡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20명 가까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이분들은 교육 이후 더 많은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 기쁨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벅차 오릅니다.

매일 순간의 삶 속에서 여전히 저는 제 안의 이기심과 욕심을 상대로 싸우고 있으며 아마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 이 싸움은 계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전과 다른 저를 느낍니다. 서로 기도하며 선한 영향력으로 이끄는 동역자들이 있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바라보며 신뢰했을 때 (TRUST FALL) 제 모든 생각과 삶을 계획하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저를 통해 기쁨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글 | 박에스더 (나바호 목장, 전문인 선교부)

아낌없이 주시는 주님!

코비드 기간 동안 온라인 선교로 3개 나라를 섬긴 저는 어릴 때 남다른 기도를 하곤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엄마가 계신 천국으로 저를 데려가 주세요" 일곱 살 저의 소녀의 기도였습니다. 누가 들을까 봐 이불을 덮어쓰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저를 너무 사랑하셨던 하나님 아버지는 저를 사랑하시기에 이 기도는 들어 주지 않으셨습니다.

오래된 우울증으로 유언장 하나를 남기시고 세 명의 아이들과 남편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어머니의 죽음을 여섯 살 어린 나이에 목격한 저는 어렸을 때부터 남달랐습니다. 이 같은 다른 부분 때문에 일 년 후에 들어오신 새어머니는 저를 사랑하시기가 힘드셨습니다. 아버지도 일 때문에 언제나 바쁘셔서 저에게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저는 언제나 지독하게 외로웠고 항상 그 누군가가 절 사랑해 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다른 아이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갈 꿈에 부풀어 있을 때 저는 아무것도 하고 싶은 게 없는데 '대학은 왜 가냐? 죽고 싶다. 내가 죽어도 아무도 울어주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외롭고 불쌍한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방황을 하였고 빨리 결혼해서 집을 나가고 싶었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스펙 좋은 남자를 만나서 아버지께 인정받고 기쁘시게 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힘들 때 부모님과 같이 다니던 교회의 목사님께 안수 기도를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하신 사람을 곧 만날 것이니 기다리라' 고 말씀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정확히 한 달 만에 지금은 결혼해서 22년째 사는 제 남편을 만나서 결혼했고 선생이라는 좋은 직업도 허락해 주셔서 18년동안 초등학교 선생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하

지만 둘째 딸이 태어나고 나서 친어머니가 겪으셨던 똑같은 우울증이 저를 찾아왔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떠나 있었던 저를 다시 부르셨습니다. 그 과정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나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 과정 가운데 함께 계셨기에 저는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고 그것을 통해 저를 깨트리시고 연단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팠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남편에게 직접 들려주는 일을 계기로 남편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12년 전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이디어를 주셨다고 믿는 일이 생겼습니다. 아이들의 동화책에 있는 교훈을 하나님의 말씀과 접목하여 교재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출석했던 교회의 교회학교 프로그램용으로 제가 만든 교재를 사용해 학생들에게 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도록 이끄셨습니다. 그때까지도 성경책을 한 번도 제대로 읽은 적이 없었던 저는 이 교재를 만들면서 동화책과 말씀을 접목했고 그 과정 중에 다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고 동화책에 숨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며 학생들보다도 오히려 저 자신이 가장 큰 은혜를 받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듭남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사랑을 몰랐고 사랑을 할 수 없었던 제가 어느덧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가르치는 선생이 되는 은혜를 주셨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해주시는 은혜도 경험했습니다.

은혜가 쌓여가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니 기도 중 이 교재를 통해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강렬한 사인이 있었고 그것은 코비드 기간 온라인 선교를 통해 응답하였습니다.

자녀와 함께 전하는 복음

먼저 한 선교단체의 선교사님을 도와 그 단체 선교 프로그램 중 하나로 쓰임 받게 하셨고 또 온라인 여름 단기선교 때 저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지인 K국을 포함한 M국, 말라위의 나라에서 이 교재를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대면으로 선교를 할 수 없는 나라에 이 교재를 사용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인도하시는 것을 확신합니다.

'옛날에 나무가 있었습니다. 나무는 소년을 사랑했습니다.……' 나의 주님은 제 스토리텔링에 담겨 있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입니다. 언제나 변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오랫동안, 아주 오랫동안 절 기다려 주셨습니다. 여섯 살 때 주님을 만나게 해 주신 그때부터, 아니 태초부터 저를 지으시고 택하여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이 저의 진정한 영원한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어리석게도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소년처럼 이 세상에서 행복과 사랑을 얻으려고 발버둥 쳤지만, 그곳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나무에 붙어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기쁘시게 그리고 제가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해달라고 간절히 무릎꿇고 기도하는 순간, 이 책을 읽고 밤새도록 나무의 희생적인 사랑에 감동해 울었던 순진한 여섯 살 어린 소녀로 돌아갔습니다. 사랑은 돌려받을 걸 바라지 않고 아낌없이 주는 것, 사랑은 그 사람과 같이 있고 싶은 것, 그 사람의 눈물을 닦아 주고 그 사람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기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저 또한 아낌없이 주는 나무로 살도록 인도해주시는 주님을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글 | 민민정 (타이토 목장, 소수민족 협력팀장)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3)

지난 2019년 7월 K 국 단기선교를 다녀온 후, 1년 뒤 2번째 단기선교를 위해 매달 기도 모임으로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팬데믹으로 인하여 K국에 방문할 수 없게 되자 2020년은 K국을 위한 기도로 모임을 지속했고 2021년엔 온라인 단기선교를 위한 교회의 격려와 도움으로 용기를 내게 되었습니다.

지난 1년여 동안 갈고 닦은 줌 미팅 실력과 온라인 행사와 사역의 경험을 바탕으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기존에 세웠던 계획을 변경하고 온라인으로 현지 선교사님들, 사역자들, 교회학교 선생님들과 교인들까지 전원이 정기모임을 통해 기도하며 캠프 일정과 주제, 프로그램을 세워 나갔습니다.

그런데, 현지 선교사님과 딸이 코비드 확진으로 판정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선교사님 가정은 물론이고 현지 교회와 팀원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주셨습니다. 현지 다른 선교사님들을 통해 산소통을 구하게 되었고 응급처치로 다행히 어려운 순간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온라인으로 선교하는 것이지만 현지에 계신 분들은 대면으로 선교를 준비하는 것이었기에 이번 온라인 단기선교를 현지에서 대면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더욱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지의 아이들을 교회로 모이도록 하고, 여름 캠프를 하는 것이 혹시라도 우리의 욕심이 아닌지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선교사님의 아내 선교사님께서 바통을 이어받아 나머지 모든 준비를 기꺼이 감당하셨습니다.

현지 월요일 아침 9시부터 시작된 캠프는 이곳 산호세 시각으로 전날 저녁 8시였기 때문에 팀원들은 오후 5시부터 모여 사운드와 영상, 스크린을 점검하고 기도로 캠프를 시작했습니다. 2019년에 함께 배웠던 찬양과 율동으로 아이들의 몸을 풀고, 마음을 열었습니다. 2년 만에 화면으로 다시 만난 아이들은 그 사이 부쩍 자랐고 우리를 여전히 기억하며 반가워 하는 아이들을 보니 감동의 눈물이 맴돌았습니다. 눈에 밟히는 그곳 아이들을 생각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큰 주제로 정했고, 하나님의 사랑은 모두에게 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임을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택하고 축복하시며 구원하시길 원한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현지에서 대면으로 모인 아이들은 3개의 스테이션에 참여했습니다. 스토리 스테이션에서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통해 아이들이 꿈을 키울 수 있는 이야기와 예수님께서 늘 곁에서 함께 걸으며 아이들의 발자국 옆에 예수님의 발자국 그리고 '아낌없이 주는 나무' 동화를 통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신 성령님의 은혜를 전했습니다.

게임스테이션은 숫자와 동물 빙고 게임, 장학퀴즈를 준비했는데 현지 아이들이 성경을 많이 읽었는지 질문에 매우 잘 답변하는 모습을 보니 대견스러웠습니다.

뮤직 스테이션 찬양과 율동을 배우는 시간을 통해 아이들의 몸과 마음이 성령님 은혜를 만끽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후 현지에서는 자체적으로 준비한 캠프를 진행하며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자유함을 누렸습니다. 4일간의 여름 캠프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쳤고 확진 판정을 받았던 선교사님과 딸도 건강해지셨습니다.

단기선교 때마다 매번 새로운 감동과 은혜를 주시는데, 이번엔 직접 갈 수 없었지만, 온라인으로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한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현지 선교사님이 서로 먼 곳에 있기 때문에 그것의 공백을 기도로 채우고자 더욱 노력하게 되었던 것 같고 하나님이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녀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원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들이 선교하는 모습을 통해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복음 그리고 성령님의 은혜를 직접 경험하게 허락하신 시간이 선교 같았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선교적인 삶이 되고, 그 삶을 우리 자녀들이 물려받는 신앙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글 | 김우정 (장백 목장, 선교기획팀 부장)

Exciting Moment for Mission

I recently graduated from UCLA with a Bachelor's degree in Psychology. Before you read any further, thank you for partnering with me as I take this next step in life. Now, I want to share with you what God has been doing in my life.

August 2020 was a nerve-wracking month. While my friends and peers were finishing their internships and receiving job offers, I was left unsure of what I wanted to pursue in my career path. As I prayed about my postgraduate plans, I told God I hoped to travel while doing something meaningful. I lifted this prayer to God every day for the rest of my summer break, and then my last year as an undergraduate began.

I was constantly job-hunting and researching various organizations and programs during the Fall quarter. Although these opportunities seemed intriguing and worthwhile, they instilled anxiety and fear in me. This intertwinement of job-hunting, anxiety, and fear continued until I heard of Grace Education Ministries (GEM). Unlike all the others, this opportunity to serve with GEM brought peace into my heart and mind. After much prayer and contemplation, I reached out to Missionary Aileen, who gladly responded. Following the application process and numerous discussions, it has been decided that I will be serving as an English teacher and school administrative aide at Grace Academy for the next school year.

Throughout my preparation process, God revealed to me that he answered my prayer request from last summer and how he was teaching me to trust him with my postgraduate plans. Moreover, I know that this trip will be a battle from now and until I return and that the challenges I face will be beyond my imagination. Yet, the new environment, the diverse people and cultures, and the trials and tribulations will place me in uncomfortable situations and strip me of any comfort to increase my dependency and trust in the Lord. He will continue to teach me the meaning of true love, humility, and joy. Likewise, He will help me exercise my faith by breaking me out of my comfort zone and not limiting Him and His power.

Through it all, my prayer is to be a glove that God will use to share the gospel of Christ to the broken, the marginalized, the ostracized, and the unreached.

Along with what I shared above, it would be wonderful if you could pray with me for the following:

1. To love Jesus with all my heart, soul, mind, and strength as well as my neighbors as myself (Mark 12: 30-31).

2. To set my mind on the Spirit because there is life and peace in Him (Romans 8:1-11).

3. To receive clarity for what I want to do career-wise as I serve in various ways in Niger.

4. For the Nigerien students, staff, and communities to have open and ready hearts to receive the gospel of Jesus Chri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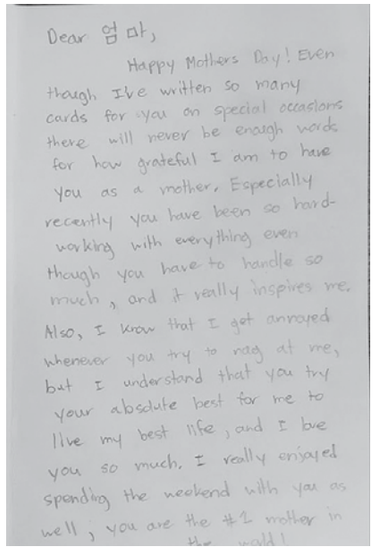
5. For the upcoming school year at Grace Academy- that God continues to be the center of everything from the beginning to the end.

All in all, thank you for your time, attention, prayers, and support. I cannot wait to see and hear what God has in store for us!

À la prochaine,

글 | Eunice Min (Intern missionary)

Family Connect를 통해 연결되고 회복되는 가족



△아들이 보낸 어머니날 편지

▽사방치기 놀이

2020년 전 세계에 무섭게 퍼진 코로나 19는 사람들의 전반적인 활동들을 집에서 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자녀들은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되고 회사와 일터로 나가던 부모들도 자택 근무를 하면서 가족 모두는 집으로 돌아오고 모이게 되었었습니다. 2~3주 정도로 생각하고 이른 방학을 맞은 듯이 신나게 집으로 오게 된 아이들의 학교생활은 2020년 한 해를 그렇게 집에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집에 있는 시간은 많아졌지만 정작 가족과 의미 있는 시간을 같이 보내고 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특히 사춘기 아들은 둔 우리 가족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같은 지붕 아래 함께 있지만, 아들의 방문은 늘 닫혀 있었고 가족 간의 소통과 마음의 문이 닫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그 누구보다도 가깝게 묶어 주신 관계가 가정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를 가깝게 하는 것은 '대화'와 '함께 시간 보내기' 임을 잘 알고 있지만 우리는 가족 구성원끼리 얼마나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는지 돌아보는 중 2021년도 가정사역부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와 묵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건강한 가족의 모습을 회복해 가고자 하는 삶의 실천 프로그램으로 Family Connect 라는 프로그램을 제안해 보았습니다. Family Connect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 기도와 예배로 하나님을 통한 가족 구성원 간에 연결고리를 만드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진행안 속에 가족 간의 관계를 가깝게 하는데 필요한 대화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예들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5월 가정의 달, 한 달 동안 진행된 2021 Family Connect는 캘린더와 함께 활동의 취지를 자세히 포함한 가이드북이 제공되었는데 이 모든 자료는 가정사역부 부장님과 팀원들 모두 수고한 결과물이었습니다.

프로그램 1:
<하나님께 더 가까이>
성경 구절 함께 읽기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기
가정 예배 드리기

프로그램 2:
<가족과 더 가까워지기>
가족들과 허깅
한 줄 칭찬의 글 써 주기
가족들에게 편지쓰기

프로그램은 현실적으로 실천할 수 있고 쉽지만 흥미로운 내용으로 만들고자 노력했습니다. Family Connect는 교회가 가정을 위해 처음 시도하는 프로그램이었고 서로 만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프로그램을 알리는 데 한계가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과연 진행 될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많았습니다. 사람이 생각하고 진행하는 데는 한계를 느낄 때 마다 팀 모두는 기도로 매달렸습니다. 임마누엘 교회 교인들에게 프로그램을 알리고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온라인의 모든 채널을 동원하여 적극적으로 행사를 프로모션 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 임마누엘 88개의 가정이 신청했고 교인으로 추정하면 약 350명이 참가하는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단 한가정이라도 온전하게 회복되는 가정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처음 준비하고 실행하는 중간 과정, 마지막 설문조사까지 매 순간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었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가능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특히 참석자들이 나눠준 피드백을 통해 그동안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임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와 부모의 관계 폭이 깊어지고 이해 공감 능력도 많이 호전 되고 있습니다. 아내와 아이가 갱년기와 사춘기를 겪으며 각자 힘들어 했는데 이제는 서로에 대한 입장을 이해하며 오히려 성숙해져 배려심이 많이 생긴 자녀를 보게 되었습니다. 가족 구성원 모두 삶의 패턴이 이렇게 깊이 그리고 오래도록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프로그램 3:
<가족과 함께 건강해지기>
산책하기
운동경기 혹은 하이킹
Outdoor Activities

프로그램 4:
<가족과 즐거운 놀이>
전통놀이 등 몸놀림
컴퓨터 혹은 콘솔 게임
영화/TV 같이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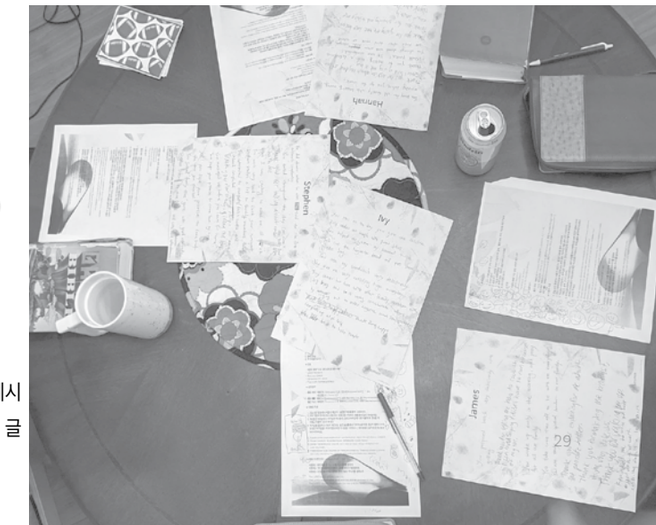
△프로그램 예시

▷칭찬의 글

Family Connect 기간 중 저의 중학교 2학년 겨울 방학의 어느 평범한 하루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말수도 별로 없으셨고 늘 직장 일로 바쁘셨던 아버지께서 병에 걸리시며 일을 쉬며 몇 달 동안 집에 계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삼 남매 중 둘째인 저에게만 아침 등산을 제안하셨습니다. 평소 대화가 전혀 없던 부녀의 등산길은 많이 어색했지만 차가 오가는 길을 걸을 때 제 손을 꼭 잡아 주셨던 아버지의 손에는 사랑과 따스함이 가득했고 그 온기는 아직 생생하게 남아있습니다. 산 중턱쯤 아버지가 '수연아, 여기 잠깐 멈췄다 가자. 아빠 기도할게.' 너무나 평범했던 아버지와의 아침 등산에 대한 기억은 40년이 지난 오늘까지 제 기억 속에 또렷이 남아있습니다.

코로나라는 엄청난 인류 재앙을 겪은 우리들의 자녀들이 자라서 2021년 5월을 되돌아봤을 때 부모와 함께 손잡고 걷던 산책길, 사랑 넘치는 포옹, 작고 소소한 칭찬들이 코로나보다 더 크고 강하게 기억하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부족한 저에게 Family Connect로 가정 사역 섬김팀에서 봉사하게 해 주신 하나님은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도 매일 저녁 아들과 기도하는 행복한 습관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글 | 김수연 (요르단 암만목장, 가정섬김팀장)



‘담물카페’는 소통의 자리입니다

저는 늘 신앙생활을 하며 궁금한 것도 많았고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내용도 많아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까지 참 오랜 시간 내 뜻대로 해석하고 생각하며 돌아돌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만났습니다. 딱히 물어볼 곳도 없었고, 담임 목사님의 방은 항상 열려 있다고 언제든지 방문하라고 하시지만, 그곳을 향하여 걸어갈 용기가 도무지 나지 않아서 한 번도 궁금한 성경 내용이나 사회 이슈에 대한 목사님의 의견을 물어볼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담물카페 같은 장소에서 편하게 담임 목사님과 소통하는 자리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남편과 저는 전도기획팀의 지지를 얻어 용기를 내 담임목사님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놀라웠던 것은 담임목사님도 성도님들과 소통의 자리를 무척 갖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그 자리를 통하여 알게 되었고, 목사님은 담물카페를 흔쾌히 수락해 주셨습니다. 솔직히 담물카페는 우리에게는 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편하게 궁금한 것 물어보는 밑져야 본전인 자리이지만 담임목사님은 본전도 못 찾을 수 있는 엄청 부담되는 자리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궁금한 것을 참기 힘들어하는 제가 위 내용을 담임목사님께 여쭈어보았더니 부담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성도님들과의 소통을 통해 성도님들의 생각을 듣는 것이 목사님께는 참으로 귀하고 소중하며, 목사님이 부족하지만 우리들이 많이 오해하고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면 목사님 체면보다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순간 목사님 주변에 광채가 났다면 믿으시려나요?

또 한 가지, 담물카페란 이름은 우리 전도기획팀 안에서 이름 공모를 하고 투표를 해서 지어진 이름입니다. 이 이름을 지으신 분은 우리 교회에 나오신 지 얼마 되지 않으시고 더욱이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과 구세주로 영접하고 세례 받으신 지 얼마 되지 않으신 가정의 형제님께서 다수의 투표수를 얻어 정해진 이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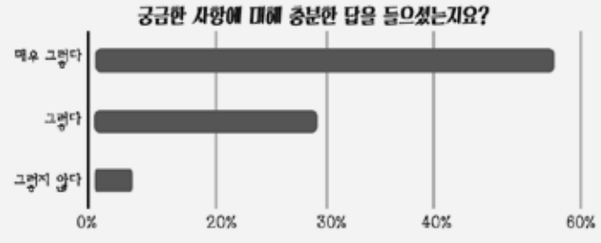
담물카페, ‘담임 목사님께 물어보세요’의 줄임말입니다. 특히 그 형제님은 저희 임마누엘 교회가 처음 신앙의 첫걸음이었으며, 현재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만나고 계시며, 저희 담물카페 1회 참석자이기도 하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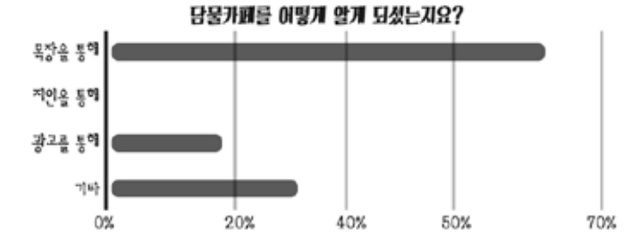
담물카페에서는 어떤 질문들을 할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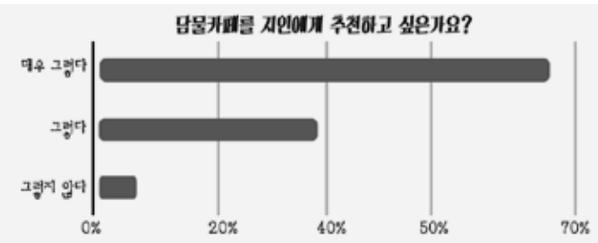
그중에는 정인이 사건에 대한 질문도 있으셨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창조론에 대한 아이들 교육은? 가정의 불화를 만들면서까지 조상님을 섬기는 것은 안 되는 것인가? 구원받고 천국에 가야 하는 이유? 영원한 생명이 내게 주는 가치는 무엇인지, 이단과 교회를 어떻게 구별하는지,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도 귀신에 들릴 수 있는지 등등 많은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방문하신 분들은 질문의 답에 만족하셨을까요?

지금까지 담물카페에 방문하신 분들은 총 16분이셨고 다수의 분이 보다 나은 담물카페를 위해 무기명으로 보내주신 피드백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로 시간이 부족해서 충분한 질문과 답을 듣지 못하신 분을 위해서는 일대일로 담임목사님과 후속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했고 그 만남을 통하여 더욱 만족하신 때도 있었습니다.

담물카페는

사랑 듬뿍 담아 만든 쿠키와 향이 그윽한 차 한잔을 마시며 담임목사님과 편안하게 성경과 복음, 기독교에 대한 의문점, 사회적 이슈 등을 무엇이든지 직접 물어보며 소통하는 자리입니다. 조금 더 편안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맘껏 질문하실 수 있도록 배려하고 준비하는 담물카페가 되겠습니다. 혹시, 예전의 저처럼 용기 내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 어떤 질문도 마음에 품고 끙끙대지 마시고 용기를 내 담물카페를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밑져야 본전입니다!”

글 | 이소영 부목자 (실론 목장, 전도기획팀)

VIP 전도를 위한 빛과 소금의 역할

지난 6월 VIP를 위한 릴레이 금식기도를 시작으로 10월 VIP 초청 잔치까지 모든 것을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전도부 사역을 통해 많은 은혜와 믿음의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도부에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저는 주일날 교회에 참석하고 예배만 드리는 선데이 크리스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전도부장님의 권유로 전도부 사역을 시작했고 집회팀에서 관련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하고 싶었지만 느닷없이 찾아온 코로나로 인해 모든 전도 집회는 계획단계에서 끝났고 2년 만에 처음으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저에게 주어진 미션은 VIP를 위한 금식기도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것이었습니다. VIP를 위한 릴레이 금식 기도를 시작한다는 사실에 걱정부터 앞섰습니다. 금식기도는 2주를 앞두고 결정된 상황이라 홍보 시간도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326분의 VIP의 이름을 부르며 금식 기도 하는 것이 쉽지 않기에 참여율이 저조할 것 같은 저의 인간적인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VIP의 이름과 지역 외에 아무런 정보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직 믿음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이 막연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제 안에 의심도 생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막상 기도 신청을 받고 보니 모든 것은 기우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일하시는 하나님께서는 91분의 믿음의 동역자분들을 허락하셨고 매 끼니 VIP 릴레이 금식기도를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셨고 결국 총 723회의 금식 기도가 영혼 구원을 위해 올려졌습니다. 더욱이 회가 거듭해 갈수록 참여를 신청하신 성도님들도 많아져서 매번 3명에서 5명으로 자릿수를 늘려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VIP 도 270명에서 326명으로 증가하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받고 계신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6월 14부터 8월 31까지 진행된 VIP를 위한 릴레이 금식 기도는 성공적이었습니다. 많은 동역자분들의 믿음으로 인해 VIP 영혼 구원을 향한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주님께 상달 되고 우리에게 응답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전체 VIP 기도는 가이드와 말씀 그리고 12개의 제목을 통해 구체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기도 제목이 이메일로 공유되었습니다. 기도를 맡은 분이 개인 사정상 기도 시간을 변경해야 할 때는 직접 연락을 주셨고 주어진 상황에 맞게 기도의 약속을 지켰던 참여자들을 통해 VIP를 위한 진심을 느낄 수 있었고 에너지가 되어 제게 힘이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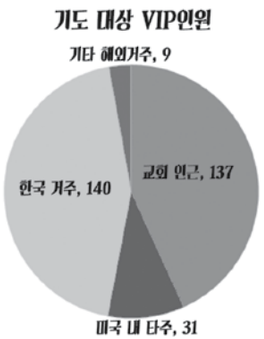
이렇게 여러 날을 기도로 준비한 후 VIP 초청 잔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불확실했던 집회 일정은 10월 2일 날 말씀 집회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 기다리던 집회를 통해 사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모든 전도 부원들은 하나가 되어 집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지난 VIP 초청 잔치와는 달리 여러 가지 지켜야 하는 제약 사항으로 인해 더 많은 기도와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기에 긴장을 놓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해 기쁘고 안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VIP 전도 집회를 준비하면서 지체마다 사역은 다르지만, 영혼 구원에서는 하나가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VIP 초청 잔치는 전도부가 주관이 되어 진행하는 집회이지만 교육부서 미디어부 관리부 찬양팀 등 다른 부서의 협조와 도움 없이는 할 수 없는 집회였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른 부서에 도움을 요청할 때가 있었는데 도움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그때마다 나의 일처럼 해주시는 각 지체를 바라보며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로마서 12장 4~5절 말씀처럼 하나가 되는 임마누엘 교회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렇게 연합하여 하나님을 섬길 때 더욱 아름다운 하모니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만들어지는 귀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회는 연주와 같은 특송이 중요한데 하나님은 이또한 예비하시고 보내주셨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바라본 집회는 처음 걱정과는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참석한 VIP는 15명이었지만 집회 후 7명이 세례를 받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기도부터 집회까지 모두가 기쁨으로 섬기고 또 VIP 역시 말씀 듣고 즐거운 표정으로 계시는 것을 목도하면서 주님께서 영혼 구원을 위해 사역하는 일들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연도 VIP 릴레이 금식기도와 초청 잔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올려진 잔치였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행사의 규모와는 상관없이 한 사람의 작은 영혼을 구원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 모두의 기도 결실이며 기쁨이 되었다는 것을 믿습니다.

글 | 박희권 (브니엘 목장, 전도집회 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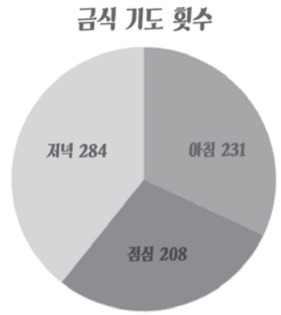


공통기도

1. 영혼 구원을 위한 릴레이 금식기도 자리에 참여하게 하신 은혜 감사하는 기도
2.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가로막는 모든 죄를 회개하는 기도
3.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릴레이 금식기도 되게 하소서.
4. 아버지의 심정으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부어 주소서.
5. 초청자들에게 성령 충만함과 영적인 담대함과 입술의 지혜를 주소서.
6. 79 일간의 전교인 릴레이 금식기도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소서.
7. 영혼 구원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VIP를 위한 기도

1. VIP들의 삶을 악한 영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소서.
2. VIP들의 마음 문을 열어 주셔서 옥토 같은 마음과 복음을 들을 귀를 주소서.
3. 하반기 VIP 초청 집회에 그들의 발걸음이 주님께로 향하게 하소서.
4. 한국, 해외, 국내 타 주에 계신 VIP들이 그곳에서 예비된 복음의 발을 만나게 하소서.
5.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큰 기쁨을 맛보게 하소서.



약함과 실패도 다시 쓰시는 하나님

저는 미국에 사는 남편을 만나 이민 오게 되었고, 남편과 스시 레스토랑을 운영하였습니다. 한국에서는 혼자 예배만 드리는 정도였고 미국으로 온 후에는 낯설다는 이유로 교회에 나가지 않았으며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생활을 하였습니다. 살면서 여러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제가 제 인생의 주인으로, 제 의지로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니 계속되는 실패와 좌절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극심한 불면증과 편두통, 안압으로 약을 달고 살았고 불안이 밀려올 때는 숨이 안 쉬어지는 불안장애도 생겨 집에만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작년 2월 안면 마비로 얼굴 오른쪽이 심하게 마비되었고 설상가상으로 코로나로 인해 가게 매출은 바닥을 치며 최악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안면마비로 한의원에 가게 되었는데 신기하게도 처음 침 맞고 온 날 밤, 저에게는 너무나 오래간만에 느껴보는 졸리다 라는 감정과 걱정, 불안의 공격이 없는 꿀잠을 잤습니다. 알고 보니 한의원 선생님들께서 저를 위해 매일 기도를 해주셨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란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커졌고 기도와 말씀, 찬양으로 저를 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교회를 섬기며 공동체 생활을 해보고 싶다는 마음과 세례 받고 싶은 마음을 주셔서 영접 기도를 하고 세례받을 날을 기다리고 있을 때, 사실 현실적인 상황은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 앞에 있는 가게는 코로나로 캠퍼스가 비어 매출은 바닥이었고 그로 인해 렌트비가 밀리며 빚도 생기고 퇴거명령 소장까지 받는 지경에 다다랐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데 얼마라도 받고 팔아야 한다는 욕심에 버티고 버텨왔었지만, 이제 하나님을 방패로 삼은 저는 이 상황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예전과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내 생각,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상황을 해결하자면서 과거의 저로 돌아가지 않으려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이런 망해가는 상황에서도 감사할 것이 너무 많았고, 어느 것 하나 당연한 것은 없었으며 사소한 거 하나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된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가게가 모든 것인 양 집착하고 움켜쥐고 있던 마음이 기도를 통해 내려놔야 할 줄도 알아야 한다는 걸 알게 해주셨고 남편과 이 마음을 나누며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해결해야 할 문제들은 여전히 남아있었습니다. 밀린 렌트비와 소장에 대한 합의를 해야 하는데 변호사 살 돈이 없어 직접 합의를 해야 했고 고심하던 중 얼굴 한번 뵌 적 없는 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지인분을 통해 저의 얘기를 들었고 도와주고 싶다는 그분은 합의서 작성을 도와주셨고 그 합의서로 합의 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3일 안에 가게 물건들을 정리하고 비워주어야 하는 일이 남아있었습니다. 기도하면서 첫날에는 지인분들에게 무료 나눔을 하였지만, 덩치 큰 물건들이 처치 곤란이었습니다. 둘째 날 밤이 되도록 가져가겠다는 연락은 전혀 없었고 이제는 돈 주고 철거하는 방법을 찾던 중 마주치면 인사만 하는 정도의 가게 사장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만둔다는 소식에 인사하러 왔다면서 가게를 둘러보더니 내일 친구들을 데리고 와 필요한 물건들을 가져가고 청소도 해주겠다며 열쇠만 두고 가라는 겁니다.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열쇠를 드렸고 다음 날 저녁에 가보니 맨 처음 가게를 세트업 할 당시 벽과 바닥만 있던 그대로의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청소는 물론이고 물건값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고선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다음 날 주일예배 때 목사님 말씀 후 부른 찬양곡이 '하나님의 은혜' 였습니다. '한량없는 은혜, 값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가사를 부르는데 뜨거움과 벅차오름이 말로는 표현이 안 되는 무한의 크기로 느껴졌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남편과 함께 다시 빈 가게로 가 감사 기도를 하였고 9년 동안 운영한 가게를 잘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주신 건강을 망쳐가며 온갖 걱정과 불안에 떠는 죄인으로 살다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준 안면 마비는 큰 은혜였고, 욕심으로 움켜쥐고 있던 가게를 내려놓는 법을 배우면서 뜨겁고 벅차오르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온갖 걱정, 불안에 집에만 있던 약하고 약했던 사람, 비즈니스를 실패한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하지만 저의 이 약함과 실패가 하나님을 다시 뜨겁게 만나는 계기가 되었고 간증이 되었습니다. 약함과 실패도 이렇게 다시 쓰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굳건히 믿으며 예전과는 전혀 다른 평안과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 저를 통해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실 그런 쓰임 받기를 기도하며 설레는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과거의 저와 비슷한 삶을 사는 분들께 제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글 | 박세영 (쿠칭 목장)

사진으로 보는 임마누엘

'He is Risen!'

2021년 4월 4일 부활주일로 현장 예배가 시작되며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를 외칩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2021년 7월 11일 재개방 예배 후 야외에서 빵과 커피로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눕니다.

‘화요여성 예배’

‘화요여성 예배’와 함께 시작된 삶의 나눔은
우리의 갈급한 심령을 채워줍니다.

‘Youth Service’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듯 팬데믹으로 답답했던 아이들의
마음에 찬양이 다시 울려 퍼집니다.

‘AWANA’

수요일! ‘저요! 저요! Delaney 전도사님과
함께하는 말씀 잔치와 게임 시간!!’

‘영아부와 유치부의 부활절’

최후의 만찬부터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까지,
선생님들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변신도 할 수 있습니다.

'2021 여름성경학교'

임마누엘만의 맞춤형 VBS, 2주간 진행된 하이브리드 여름성경학교는 'Destination Dig'라는 주제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소명과 비전을 제시합니다.

'재 포도주는 재 부대에'

목장 재편성을 앞두고 목자 임직식과 재헌신을 통해 새로운 출발을 다짐합니다.
임마누엘 목자님, 부목자님 파이팅!!

‘VIP 초청잔치’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 집회 중에 진행된 만큼 그 열기가 뜨거웠고 참석자들이 예수님을 더 알고 싶다고 고백했습니다.

‘Reformation Day & Harvest Festival’

교회 재개방 이후 가장 많은 교인이 모였습니다. 예배로 재정비한 이후 게임, 만들기, 먹거리 등의 다양한 활동으로 가을이 더욱 풍성해집니다.

'에녹 야외예배'

에녹을 본받아… 삶의 지혜는 말씀 암송에서 시작되나요?
신앙의 선배님들! 오래오래 건강히 지내십시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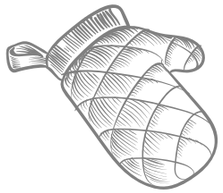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는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우릴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어노인팅



함박 스테이크

40~60대분들에게는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20~30대에게는 눈으로 즐거운 식사를 하게 하고, 그러면서 아이들도 잘 먹는 메뉴를 고민하다 보면 고기 패티를 두툼하게 구워, 색색깔 가니쉬를 곁들일 수 있는 함박 스테이크가 떠오릅니다. 조금 특별한 날, 목장 식구들과 함께했을 때 칭찬을 많이 받은 메뉴이기도 해서 나눕니다. 어느 가정이나 상주하고 계신 유(튜브) 선생님, 그중 백모 선생님을 통해 쉽게 배울 수 있는 레시피입니다.

재료 (패티 7개 정도 분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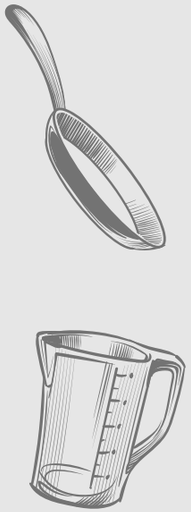
- 다진 고기 6컵 (다진 쇠고기와 다진 돼지고기 6:4 비율 정도)
- 다진 양파 2컵
- 빵가루 2컵
- 간 마늘 1스푼
- 우스터소스 혹은 바비큐 소스 1/4컵
- 케첩 주욱 한번 짜고
- 버터 한 스틱
- 식용유 2스푼
- 후춧가루 톡톡톡
- 소금 한꼬집 혹은 두꼬집
- 달걀 2~3개

1. 눈물을 머금고 다진 양파를 버터와 식용유를 두른 팬에 타지 않도록 잘 볶아줍니다.
2. 후춧가루를 넉넉히 톡톡톡. 소금 한두 꼬집 넣어 갈색이 될 때까지 볶아 넓은 접시에 옮겨 충분히 식혀줍니다.
3. 식힌 볶은 양파에 다진 고기 두 종류를 넣고 (개인적으로 돼지고기가 꼭 들어가야 부드럽고 풍미가 좋았습니다)
4. 빵가루 2컵, 마늘, 케첩, 우스터소스 넣고 잘 섞어줍니다.
5. 농도를 봐가며 달걀을 넣고 야구공 모양으로 양손으로 고기를 치대며 패티 모양으로 손바닥만 하게 모양을 잡습니다.
6. 고기 가운데를 움푹하게 눌러주며 모양을 잡아 지퍼백에 보관 혹은 바로 구울 준비!
7. 굽는 것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급변하는 고기의 모양과 현란한 불 조절에도, 요동치 않는 담대한 마음을 구하는 기도를 하며 임합니다. 처음은 센 불에서 시작, 팬이 달궈지면 고기 패티를 올리고, 바로 불을 줄여 약한 불에서 오래 익힙니다. 고기의 1/3이 잠길 정도로 넉넉한 물을 붓고 뚜껑을 덮어 스팀 하듯 익힙니다. 고기 사이즈가 많이 줄어도 당황하지 마시고, 다음엔 패티를 더 크게 만들겠다 다짐하며 지금 만들어 놓은 것을 잘 익히는 데에 집중합니다. 물에 담가 스팀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리던 노릇이 안 나오고…. 곰국이 되는 거 아냐?' 동공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허나…. 시간을 놓치면 물은 급격히 졸아들고, 염려와 다르게 금세 고기가 타서 완전히 망하는 놀라움이 기다릴 수 있으니, 물이 거의 줄어들면 뚜껑을 열고 잘 지켜보며 불의 세기를 중간 불로 올립니다. 물에서 건져낸 허연 편육의 자태가 아니거나 바비큐 그릴에서 타버린 고기만 아니면 소스와 가니쉬로 어떻게든 심폐소생 가능하니 너무 걱정 마세요.

8. 소스 만들기- 양파를 채를 썰어 노릇하게 볶다가 황설탕 2: 양조간장(조선간장 노노!) 1: 케첩 2 비율로 듬뿍 그리고 후춧가루 톡톡 넣어 넉넉한 분량으로 만들어 둡니다. 저는 우스터소스 나 바비큐 소스도 주욱 짜 넣었습니다. 이도 저도 자신 없으면 시판 돈가스 소스를 사용하셔도 되고요. 색깔을 보고, 간을 보며 냉장고에 있는 소스들을 넣어봅니다.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자매님들은 너무 많은 양을 맛보지 않도록 합니다.
9. 가니쉬는 원하시는 대로 저는 새송이버섯을 얇게 썰고, 버터에 살짝 구운 아스파라거스 두세 개와 단호박을 두 슬라이스 올리고 방울토마토를 몇 개 올리는 것이 제일 색감이 예쁘고 좋았습니다. 고기를 굽는 일에서 너무 에너지를 소비했다면, 그냥 색색깔 피망을 썰어 올리기만 하셔도 좋습니다.
10. 아, 패티 위에 반숙된 계란 후라이 올리는 것 잊지 마시고요! 노른자를 포크로 갈라 주르륵 고기와 소스 위에 흘러 함께 먹는 것이 아주 맛있습니다. 그리고, 몸을 던져 고기의 탄 부분을 덮는 아주 성경적이고, 귀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11. 이것은 나름 양식인데요…. 하셔도, 김치나 단무지를 찾으시는 어르신은 꼭 계시니까 사이드로 준비합니다.
12. 하와이안 디너 롤과 하얀 밥을 둘 다 준비해서…. 밥으로 드릴까요, 빵으로 드릴까요? 여쭤보며 서빙하면, 옛날 사람 인정이지만, 너무들 감격하십니다.

*부탁하신 레시피를 적다 보니, 함박 스테이크를 함께 하며 좋아하신 목자님과 우리 목장 식구들의 함박웃음이 너무 그립습니다. 그동안 함께하며 정말 행복하고, 눈물이 날 것처럼 마음 따뜻했습니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글 | 윤지은 (말라위 목장, 새가족부)



글 • 그림 | 임명진 (호산나 성가대)

가정교회 / 제자의 길

가 정교회를 통해
정 성으로
교 제할 때
회 복의 은혜를 주시는 성령님!

제 맘대로 살다가 십자가의 은혜로
자 아가 깨어지면
의 로운 것이 나에게 하나도 없음을 깨닫고
길 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강창범 목자 (비쉬켁 목장)

가 즈아, 목장으로!
정 말 귀찮아요. 목자님~
교 제를 나누며 양식의 말씀도 먹을 수 있어요
회 덮밥 해줄게^^

제 자리 신앙을 갖는 당신이여!
자 신감을 잃지 마세요
의 기소침하지도 마세요
길 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붙잡으면 돼요!

김일구 목자 (네곰보 목장)

가 자!
정 말 좋은
교 회,
회 춘한다.

제 가
자 연스럽게
의 지하는
길 은 제자의 길

안지철 목자 (평안 목장)

가 보려 합니다
정 말 어렵겠지만
교 만함. 내려놓고
회 개와 회복의 길을…

제 가 해냈다고
자 만했지요. 예수님을
의 지하지 않으면
길 을 잃더군요

강성택 목자 (ST 목장)

가 정교회란 사랑과
정 을 나누어 주며 가는 곳마다
교 회를 세우기 노력하여
회 복되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 언덕의 등불이다

제 자의 길이란
자 기 육체가 이끌려 하는 길을 포기하고
의 에 길을 걷기 위하여
길 을 인도하시는 주님에게 순종하는 삶이다

김태형 목자 (포카라 목장)

Interview with Pastor Paul and Charlene Shim

Question 1:

WHICH CHURCH DID YOU SERVE AS PASTOR BEFORE COMING TO EMMANUEL CHURCH? ALSO, WHICH MINISTRY AREAS DID YOU FOCUS ON?

I served as the Pastor of Community Life and College at "All Nations Community Church" in Los Angeles.

Question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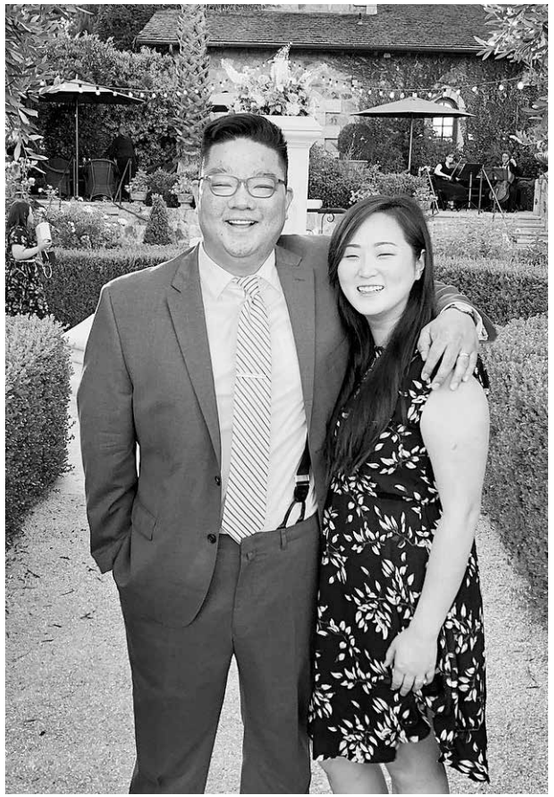
HOW DID YOU MINISTER IN EMMANUEL EM DURING THE PANDEMIC?

I think the biggest part of transitioning to EPC during the pandemic was to first, reach out and meet the congregation to get to know them and serve them in listening during this difficult time. There were so many people who were having a hard time as everyone struggled with a variety of hardships during the pandemic and I think my first desire was to meet with them to encourage them and remind the church that God is still with us. The second priority was to bring a sense of stability and organization to the church, especially in how we gathered to worship. Worship is the greatest thing that the church does together, so an important thing was to gather together in the Gospel.

Question 3:

IS THERE ANYTHING YOU WOULD LIKE TO DO OR WISH TO COLLABORATE WITH THE KM FAMILY IN 2022?

I'm still getting to know the KM as I have only been at EPC for about 10 months so I am not sure about this. From my



experience with KM and EM relationships in past churches that I have served, a big need is having a clear relationship with trust, humility and honest communication is so powerfully important, especially among those who serve and lead the church. I look forward to getting to know and seeing how EPC functions and serves as the body of Christ.

Question 4:

WHAT IS THE VISION GOD HAS GIVEN TO YOU AS PASTOR?

I have a humble vision as a pastor. It's simply to be more faithful to God today than yesterday, and to be more faithful to God tomorrow than today. My whole life has been a story of God showing me that He is greater and more powerful that I could ever dream or hope to be. I am thankful and humbled by the fact that He has called me to ministry to serve His church. Because of Him, I am confident to use the gifts, mind and passion that He has given me to encourage, serve and lead the church that first seeks to please God rather than myself or other human beings.

Question 5:

WHAT IS THE MOST MEMORABLE EPISODE OF YOUR MINISTRY?

Seeing sinful people believe in a perfect righteous God and having lives transformed by God grace. I have seen crazy miracles happen by God's grace as well as sinful people that I would never have hope for turn their lives around by the cross of Jesus. Even in my own heart, knowing that I am a sinner, it's still shocking to me that God loves us so perfectly and saves us by His power and grace alone.

Question 6:

WHAT IS YOUR MAIN PRAY LIST IN 2022?

For joy and courage as I serve at EPC. And for the church to return to obedience and surrender to Christ and the Gospel as the main hope of our lives. The pandemic has brought difficulties where many of us have turned inside of ourselves. We have become more stubborn, selfish and cold-hearted in some ways. Often, difficult times in life make us either more open to God and one another or more closed to God and one another. I think the pandemic has isolated many people in the church and we have chosen ourselves over being obedient to loving God and one another as He loves us.

Question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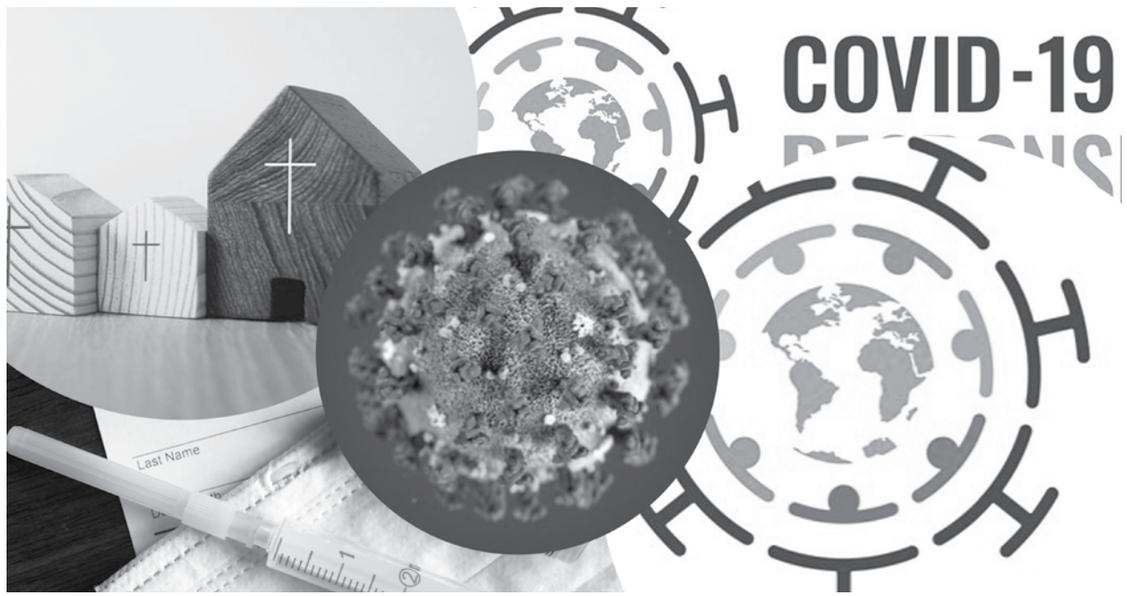
WHAT DO YOU WANT TO COMMENT TO THE EMMANUEL EM AND KM FAMIL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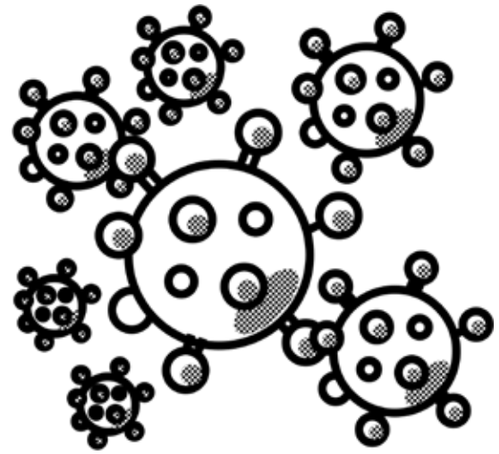
My hope and prayer is that we as a church would not only want to "look like, sound like or have knowledge" like Christians, but that we would truly have humility before God and each other in living all of our lives in obedience and surrender to Christ as Lord. To be more faithful today than yesterday, and to be more faithful tomorrow than today.

팬데믹 기간동안 지켜온 자녀들의 구원간증

During COVID, I got a little bit more involved with the youth servant team, which put me in an uncomfortable position multiple times as I interacted with others, especially since I was unfamiliar with leadership and just very awkward online. But overall, I feel like quarantine was still a pretty comfortable time for me because I found myself in a more suitable social setting as an introvert. I didn't have to interact with people as personally or intimately since it was all online. Despite this, I do think that in terms of church, this comfort wasn't necessarily a good thing because being comfortable restricted me from being a servant of God that always pursued to glorify Him or love upon the youth group. Even as a member of Inreach, I did find myself using the online platform that we had our services and meetings on to not fully engage in whatever was going on to an optimal level – this almost became a habit of apathy towards my own faith to God and put me in a difficult place spiritually for a couple months. But even though there were a lot of times where I questioned my own salvation, or many times that I was just generally struggling, I think that COVID helped me to grow a lot as a person, a member of the church, a friend, and a sister in Christ.

글 | Priscilla Cho (Youth 11학년)





Experiencing the lockdown was not easy for me in many different ways. Not only was it hard for me to connect at school, but also at church. Although I did enjoy online service, it still didn't feel the same as before. As time passed, I did get used to being online, but at the same time, I partially forgot what it felt like to be inside a sanctuary.

Not only that, but it was also hard for me to focus online. It was hard to fully understand what Pastor Delaney (or Pastor Sarah) were teaching. I started taking notes during the sermon, making me listen to the sermon closer, and allowing me to think deeper. As I gained more focus and learned more, small groups started to make even more sense than they had before, and I was also able to connect more to what the teachers and pastors were saying.

Every night, my family and I started having daily family worship at night. We praised God, prayed, and read the bible. On Sundays, I would share my notes and we would have a big discussion about the sermon, sometimes reading the passage from the sermon again.

글 | Jungsuh Ro (초등부 5학년)

Hello, My name is Abigail and I'm in 5th grade (10 years old). I have faced some challenges due to covid and one of the hardest was online church. Online church was okay. It wasn't hard, but it wasn't easy to focus on what the sermon was. The sermon on zoom was hard to understand but also church online just felt different and not interactive and fun. It didn't feel even close to what in-person church was. Thankfully, I got used to online service but I felt like I was drifting farther and farther away from God.

Then when the church opened back up, I felt I was slowly going back to him. The noise of the crowd when adults came buzzing out of the main chapel made me feel how God is bringing back the people to church to worship and praise him. I've always loved going to church but now, I love it even more.

This Sunday we learned how God created humans/people and how God made them for a reason and how we can choose to follow it or not, and now I'm waiting for him to show my reas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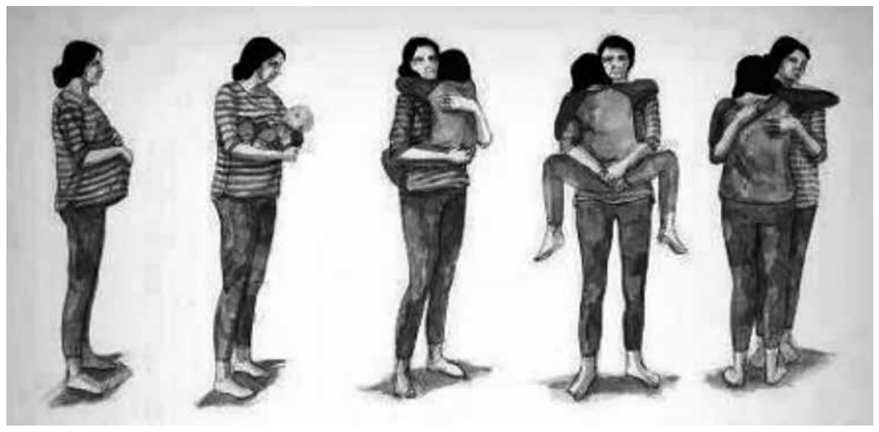
글 | Abigail Kang (초등부 5학년)

왕이신 나의 하나님

저는 대학 1학년을 마친 딸과 10학년 아들의 엄마입니다. 작년 가을부터 기도하는 엄마들 소그룹에 참석하여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의 딸아이는 하이 스쿨을 아주 힘들게 보냈습니다. 사춘기로 힘들어하던 중 10학년 2학기 중반에는 교통사고로 학교를 한 달 쉬어야 했고 그 후 아침마다 울면서 학교에 가고 아예 빠지는 날도 많았습니다. 학교 대신 함께 손잡고 산타크루즈 기도원에 가서 앉아 있던 날도 생각이 납니다. 그런 시간을 보내며 아이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딸아이는 동부로 대학을 가게 되었고 저는 기도하는 엄마들 모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이가 고등학교 때 겪은 아픔과 낙심으로부터 회복되어 대학에서는 건강히 모든 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길 함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아이를 코로나로부터도 지켜주셨고 고등학교 때와는 180도 다른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딸아이가 열심히 하나님 의지하며 성실하게 일 년을 보내고 성숙하고 환한 모습으로 집에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딸아이가 '고등학교 때의 아픔은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었기 때문에 괜찮다며, 그 시간을 함께 견뎌주고 보듬어준 엄마와 아빠에게 감사하다' 는 말을 하며 서로 용서를 구하는 치유의 시간을 갖게 하셨습니다. 지난 고통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자녀를 내려놓도록 엄마인 저를 빚어가며 역사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엄마들 모임에서는 매주 하나님의 성품과 이름 속성과 사역을 성경 말씀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께 자녀를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가장 큰 은혜를 주신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 모임에서 선포되는, 출애굽기의 하나님을 점점 마음 깊이 신뢰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불안과 조급함으로 아이를 통제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로 맡기고 순종하도록 훈련하셨습니다.

딸아이에게 잔소리하기 전에 '하나님, 제가 말한다고 되나요? 하나님의 주권에 아이를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아이가 스스로 잘 결정하고 친구 관계도 잘 대처해 나가는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이가 학생회장에 출마하게 되었는데 이것을 제목으로 올리고 기도 모임에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결과는 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기도에 응답하신 완전하시고 선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모든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가 들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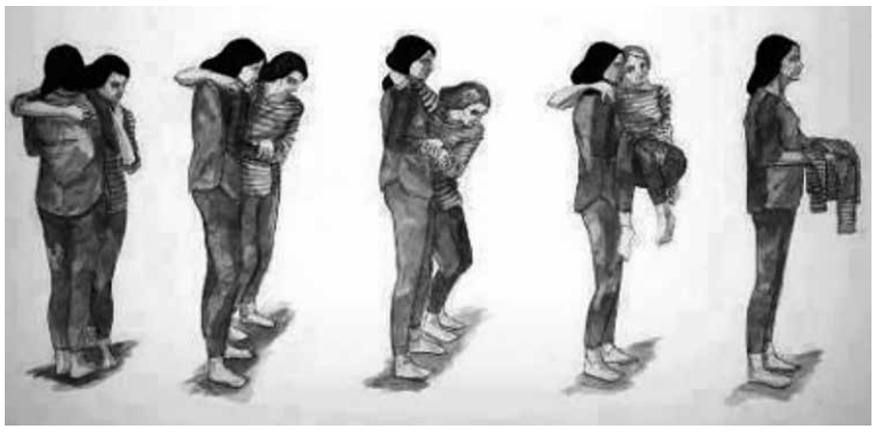
어느 날 아들에게 기도하는 엄마들 모임에서 학교 축구 시즌에 다치지 않고 잘 끝낼 수 있게 기도드렸다고 말하니 아들은 감사하다며 저에게 다른 기도 제목들도 나누며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이렇게 아들과 제 사이에서도 기도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기쁜 소식을 나누지만 사실 넘어질 때가 더 많습니다. 딸아이의 진로나 둘째 아들의 탁월한 친구 이야기를 들으면 잠시 맘이 흔들리고 걱정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실수 없으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선포하며 우리 아이들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부르심대로 인도하실 것을 순종 감사 신뢰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주시는 평안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에 다시 아이들을 맡기며 나아가게 하십니다. 이런 연약한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권사님, 집사님 가정 자녀들의 기도 제목들에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응답해주심으로 함께 감사드리며 계속 자녀들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누며 이 시간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는 자매님을 전도할 때 기도 부탁을 드려 영혼 구원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일도 있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요한일서 2:15-17

딸아이를 제 욕심과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하며 대학 입시 걱정으로 불안해 잠 못 이루던 어느 날 새벽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의 그런 마음은 이생의 자랑이다.' 라며 요한일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기도하는 엄마들이 그리고 제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로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우리 자녀들을 내어드리고 맡기는 엄마들로 굳게 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영원히 거하는 축복의 엄마, 축복의 자녀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글 | 김이향 (볼리비아 목장, 기도하는 엄마들 소그룹 리더)



90일 비전 통독을 마치며

저는 경북 영천군 신령면 완전리라는 조금은 특별한 이름을 가진 시골에서 과수원집 셋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장로님이신 아버지와 두 분 오빠와 두 분 언니를 둔 비교적 유복한 환경에서 모태신앙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땅을 통해 삶을 영위하는 시골이었기에 도시보다 좀 더 순수한 신앙을 배우며 부모님의 교회 생활을 통해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을 자연스럽게 믿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언니 오빠들과 함께 대구에서 유학 생활을 하며 대구 제일교회를 다녔는데 청년부를 다니면서는 생명의 삶으로 묵상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성경을 읽을 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부터는 부모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여고에서 화학을 가르치는 교직 생활을 20년간 하였습니다. 2006년 12월에 산호세로 건너와 임마누엘 교회는 2008년부터 다녔는데 녹록지 않은 이민 생활의 수고를 2016년 시행된 전교인 성경 읽기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새롭게 다시 만나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큰 위로를 맛보았습니다. 저의 일터는 엘카미노 선상에 있는데 코로나 전까지는 온종일 몸을 녹여 살아내는 이곳에서의 생활이 절대 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고 태평양 건너 열어주신 이곳에서의 삶을 결코 육에 져서 살고 싶지 않았기에 새벽기도를 붙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읽기를 통해 전 교인과 함께 하루에 3~4장씩 성경을 함께 읽어나가는 기쁨과 함께 새벽예배 때 말씀으로 그날의 본문을 선포했기 때문에 더욱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더욱이 요일별로 교역자분들이 달랐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접근이 풍성했고 한분 한분 말씀을 전해주는 목회자분들을 위해 중보하고 베뢰아 성도처럼 더 깊이 성경을 묵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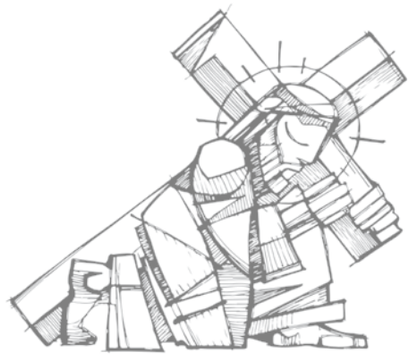
전 세계에 불어닥친 코로나는 저에게도 일터에 더는 못 나가게 되어 생존을 위협하는 위기로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셨습니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엎드린 가운데 당신의 자녀를 돌보아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또다시 경험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 위기는 새로운 기회가 되었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줌 미팅을 통해 작년 가을학기 화요 성경학교 바울 서신도 듣게 하시고 올 봄학기는 90일 비전 통독까지 참여하게 하시며 13주 동안 성경을 일독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일독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이 보이며 한 권씩 읽을 때마다 크고 작은 산을 하나씩 넘는 은혜가 있습니다. 각 권마다 기록한 저자의 마음이 어렴풋이 비추어지며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마음이라 생각하니 가슴 벅차기도 하였고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애절함이 느껴지기도 하였습니다. 특별히 성경 공부방식이 일반적인 강의방식의 전달 방법이 아닌 소그룹 모임으로 성경을 삶에 적용하고 그것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 13주 동안 엄청난 분량의 성경을 소화해내는 동지애를 느끼며 서로 나누다 보니 언제나 시간이 짧게 여겨져 아쉬움이 가득했습니다.

이번 90일 비전 통독에 참여하신 분들 가운데 선교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선교사의 삶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한 은사가 아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의 소통을 성실하게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주님께로 이끄는 전도사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어나야 할 다음 세대 역시 말씀과 기도가 원동력임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또한, 가정과 자녀가 하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기도하며 말씀과 묵상의 훈련을 멈추지 않기 위해 참석한 교인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모두가 말씀에 대한 열정이 특별했습니다. 그리고 다같이 성령님을 의지하여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통해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었습니다.

지난 부활주일 담임목사님 설교를 통해 바울과 함께한 1차 전도여행에서 유약한 마가가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가능하게 했던 원동력이 기억났습니다. 마가를 둘러싼 영적 환경이 후일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에게 없어서는 안 될 복음의 동역자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처럼 화요 성경학교가 나에게 영적 환경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유약한 나를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주시고 빚어주시는 은혜가 가득한 시간이었습니다.

글 | 한순애 (신앙부 주일 중보기도팀장)



요한복음 보석을 캐다

팬데믹으로 인해 우리들의 일상이 아주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바로 비대면 모임인 줌 미팅의 활성화입니다. 일터에 매여 마음이 있어도 참석하지 못했던 여성 예배가 팬데믹을 통해 작년 가을, 우리 주님! 저에게 열린 문의 은혜로 두 팔을 벌려 환영하여 주셨습니다.

작년 가을학기는 성경 통독 반 소그룹에 참여하였으며 이번 봄학기는 요한복음을 묵상하는 커피브레이크 소그룹으로 배정을 해주셨습니다. 평소 새벽 강단에서 뵙던 임마누엘 주의 종들을 여성 예배를 통해 밝은 아침에 화요강단에서 뵐 수 있는 것도 감사했고 무엇보다 1년 만에 마침내 대면 예배로 진행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커피브레이크에서 묵상하던 요한복음을 통해 만민이 기도하는 아버지의 집을 향한 우리 주님의 성전정화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크게 와닿게 하시며 대면 예배로 진행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에 부족한 저도 불러주시어 아버지의 집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 되는 일에 쓰임 받도록 미리 요한복음을 통해 이끌어주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감사드렸습니다.

그때 비록 백신은 맞지 못했지만 너무나 분명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결단하고 믿음으로 참석을 위한 사인 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온라인으로 참석을 신청하고 돌아선 그날 저녁,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신앙위원회 기드온을 섬기는 장로님 한 분이 백신 접종에 대한 정보를 올려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바로 다음 날에 접종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장소도 우리 집에서 10분 거리에 있어서 한달음에 달려가 접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를 위해서도 그랬지만 특별 새벽기도회에 나아오시는 믿음의 지체들에게 불편함을 끼치지 않게 됨이 얼마나 기뻤던지요!

1년 만에 현장 예배로 새롭게 참여하게 된 새벽기도는 2021년 봄날을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은혜로 노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팬데믹 가운데 임마누엘 권속으로 사랑의 빚을 크게 지게 하시며 사랑의 빚진 자로서 주님의 피 흘려 사신 하나님의 몸 된 교회에서 깨어 기도하는 자로 온전히 녹는 은혜를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여성 예배를 섬겨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마음 전하며 임마누엘 울타리 안에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믿음의 여인들이 함께하는 여성 예배를 통해 우리 주님 홀로 크게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글 | 주은혜 (수요찬양 주방봉사팀장)

씨를 심고, 거두시는 이는 하나님

매주 목장을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맞벌이 부부에 사춘기 아이가 있고 바쁜 일상 중 목장 시간은 왜 이렇게 빨리 다가오는지요. 목장의 아이들이 어릴 때는 나눔을 한 건지, 밥을 먹었는지 모르겠고 그러다 우는 아이를 데리고 먼저 집에 가는 목원도 있고 갑자기 아이가 아파서 목장 참석을 못 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부부싸움으로 인해 한 분만 참석하시는 가정도 있었고 어느 날은 개인의 사정상 목장에 아무도 오지 않는 날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모임을 하지만 나눔이 겉돌고 뭔가 아쉬움이 남을 때도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신앙적으로 침체하여 있을 때도 많았고 또 노력에 한계를 느끼며 변화 없음에 실망하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도 목장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섬기는 기쁨과 열매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목장을 하면서 매번 기쁘고, 열매를 자주 보는 것은 어렵습니다. 오히려 힘들고 발전이 없다고 느낄 때가 많은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깨닫게 되는 은혜를 주십니다.

목장의 가장 큰 축복은 영혼 구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섬기던 VIP가 생각이 납니다. 남편 직장으로 샌디에고에 살며 목자로 헌신했습니다. 이웃에 살았던 한국 가정이 있었는데 부부끼리 나이도 비슷하고 저희 목원의 후배이기도 해서 저희 목장에 초대해 종종 함께 어울렸습니다. 그분들은 가치관부터 취미까지 우리와 많이 다른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서 목장에 초대하면서도 영혼 구원이라든지 교회 출석은 아예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부부 모두 음주와 가무를 좋아하시고 또 시간이 될 때마다 아기를 맡기고 나이트나 카지노에 다니시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서 집에 계시면 목장에 오셔서 함께 어울리는 것을 마다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분들이 오시면 찬양과 예배를 하는 부분은 생략하고 그저 음식을 나누고 교제에 힘쓰는데 집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인가 고민했고 다른 목원들과 이 VIP를 어떻게 전도해야 하는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은 직장에서 레이오프가 되었고 샌디에고 생활을 접고 산호세로 올라왔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몇년 후에 그 당시 같이 VIP를 섬겼던 목원에게 들은 소식은 그 VIP 남편분이 현재 플러튼에 있는 한 교회에 안수 집사님이 되었고 누구보다 뜨겁게 하나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우리가 목장에서 시간을 함께 보냈던 것들이 그냥 버려지는 시간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도 목장에서 뭔가 정체되어 있다고 느낄 때 샌디에고 VIP였던 그분들을 생각하곤 합니다. 우리가 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모든 과정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목장을 하면서 좋았던 것들은 목원들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했던 시간, 가족처럼 지내고 같이 음식을 해 먹고 아이들을 키우고 여행을 갔던 기억들이 정말 소중한 추억입니다. 목원의 아이가 미대 입시를 위해 면접을 보러 갔을 때 목장 식구들이 다 같이 새벽부터 가서 함께 줄 서주고 기도했던 일, 집 공사 문제로 이견 조율이 되지 않아 냉전 중인 목장 식구 부부를 초대해서 고기 구워 먹으며 화해를 도모했던 일, 직장 이직을 위해 몇 달 동안 함께 기도하고 응답받았던 일 등 아주 많습니다. 그중 가장 즐거웠던 일은 토요일 새벽에 목장 식구들과 함께 김치 봉사를 했던 일입니다. 집에서는 김치를 사 먹을지언정 교회 김치는 함께 만나서 담궜기 때문에 김치를 남기는 분을 볼 때 함께 안타까워할 수 있었던 일은 우리들만 아는 귀한 추억입니다.

글 | 이지선B 부목자 (TVN 목장)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 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고린도전서 3:6-7

‘확신의 삶’을 통한 감사의 회복

가장 부담 없이 쉴 수 있는 토요일 아침 9시에 온라인으로 모이는 것은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사실 주중에 교재를 읽고 숙제하는 것이 부담되었지만 확신의 삶을 마치면서 여러 가지 의미를 발견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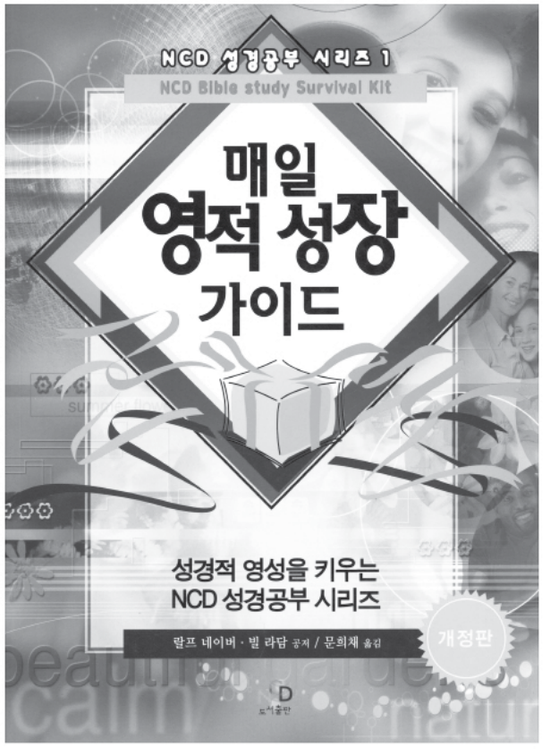
첫째 하나님은 제게 꼭 필요한 시기에 이 모임을 하게 하신 것이고, 둘째는 독특한 교재의 구성을 통해 신앙생활의 기본을 다시 점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초원 목자님과의 일대일 모임을 통해 삶을 나누는 과정에서 희미하게 보였던 바울의 일생이 생생하게 다가오는 특별한 경험을 한 것입니다. 먼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확신의 삶을 할 수 있었던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삶의 활동 반경이 줄어들면서 가정과 직장에서의 균형은 맞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다른 때 보다 커지게 되어 정신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임을 알고 있었지만, 주변 환경은 저의 생각과 무관하게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이 힘든 시기에 내 삶의 중심은 나로 돌아가 있었고,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직장에서 여러 개의 프로젝트를 동시에 진행하며 바쁘게 사는 저는 반복되는 일상에서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나와 내 가족은 행복한가?’ 라는 생각으로 저 자신을 스스로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초원 목자님은 확신의 삶을 권하셨고, 저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말 시간을 할애하기로 했습니다.

첫째로 확신의 삶 과정을 통해 나의 중심에 주님을 다시 모시고 순종을 실천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여러 문제들이 순차적으로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풍랑 속 배에 다가오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유령인지 알고 놀라면서 허둥대는 제자들에게 다가온 것은 그들 스스로가 만들어낸 두려운 존재가 아닌 나를 구원해주신 바로 주님이었습니다. ‘나니라 두려워 말라’ 라는 주님의 말씀은 저에게 강한 울림이 되어 하루하루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날을 소망하는 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저에게 다시 평안함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렸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 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대
마태복음 14:25-28

둘째로 확신의 삶을 위해 사용한 교재는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한 몸, 두 가지 속성, 세 가지 구원의 단계, 네 가지 권위의 원천들, 그리고 다섯 원리로 된 교재는 인위적인 느낌이 들었고, 번역된 내용이 힘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매주 숙제를 하며 내 안의 신앙을 다시 점검하고 초심으로 돌아가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일일이 찾지 않도록 제공된 보충교재는 엄선된 본문의 내용에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초원 목자님과 일대일로 삶을 나누었기 때문에 서로에게 솔직할 수 있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직장을 다니는 두 명의 가장이 삶을 나누며, 직장인으로서의 바울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사용한 교재가 바울 서신에서 많은 본문을 인용하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바울의 삶을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좋은 환경에서 많이 공부하였지만, 예수님을 철저히 부인하였고, 이후 예수님을 만난 다음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았습니다. 초원목자님과 삶을 나누면서 예수님과 바울의 관계를 실리콘밸리의 분위기로 바꾸어 보다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았습니다. 바울의 삶은 많은 직장인의 위로가 되는 것 같았고 저도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새로운 진리의 눈이 띄어지면서 험난한 삶도 마지않았던 도전적인 바울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감옥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른 선을 이루며 살았는가’에 대한 삶의 성찰을 하는 그의 모습을 통해 나약한 나 자신의 삶을 반성하는 은혜를 또한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주님의 곁으로 가서 함께 한다는 그의 말씀과 성령이 남겨진 자들과 함께한다는 그의 기도와 말씀을 통해 제 삶의 방향성에 대해 다시 생각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6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는 빌립보서의 말씀과 바다를 걸어오시면서 ‘나니라 두려워 말라’ 이 두 말씀을 통해 제 삶의 중심에 그리스도를 모셔야 한다는 것을 확인 시켜 주었습니다. 겨자씨 한 알의 믿음만으로 산을 옮기고 모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한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항상 감사와 기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글 | 고영준 목자 (지부티 목장)

주님만이 도움 되고 주님만이 친구 되는 목장

목장을 섬긴 지 1년이 조금 넘는 새내기 목자로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풍성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2019년 여름, 미시간에서 하던 공부를 마치고 새로운 직장을 따라 이곳 산호세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방황하던 대학원생 시절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 교회의 청년 공동체를 섬기면서 섬김의 기쁨을 배우고 누리며 지냈습니다. 그 기쁨과 은혜의 크기를 알기에 새롭게 정착한 임마누엘 교회에서도 공동체를 섬길 수 있는 자리를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중 작년 새해가 시작되면서 통독 모임 리더를 맡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은 2월에 조건희 목자님이 한국으로 거처를 옮기시며, 통독 모임 리더와 소그룹 모임 리더를 겸하게 되었습니다.

목장을 섬기기 시작하면서 몇 가지 걱정되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목원분들과 충분히 가까워지기 전에 목자로 섬기게 되어서, 전임 목자님처럼 목원들과 친구같이 편한 만남을 이어갈 수 있을지, 혹시 아직은 어색한 사이로 인해 목원들이 목장 모임을 불편해하시지는 않을지 걱정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통독 모임을 시작은 했지만 목원 분 중 아직 믿음이 싹트지 못한 VIP 가정, 믿음을 가지고는 있지만 힘들었던 경험으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가정, 교회 안에 있었던 관계의 상처로 인해 믿음 생활에서 멀어졌던 가정 등 신앙과 말씀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상황에서 매일 같이 통독을 이어나가고 통독 모임을 하는 것이 그분들에게 남의 이야기가 되어버리면 어쩌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걱정으로 인해 작년 연초에는 조금 분주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목장의 형제님들께 데이트를 신청하고 목장 모임이 아닌 별도로 커피타임을 가지며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고 부목자인 아내는 케이크를 만들어 자매님들과 함께 나눔을 갖는 시간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서로 알아가는 과정이 즐겁기만 하던 즈음, 3월부터 코로나가 극성을 부리면서 오프라인 모임

을 이어나가기 힘들게 되었고, 대부분의 섬김을 온라인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보내던 어느 날 하나님께 묻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부족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귀한 양을 놓쳐버리면 어쩌죠? 팬데믹은 잠시 후면 지나가겠지만, 이 기간에 제 엉성한 섬김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다시 하나님을 만나기 힘든 분이 생기면, 어떡하나요. 주님이 맡아주세요. 제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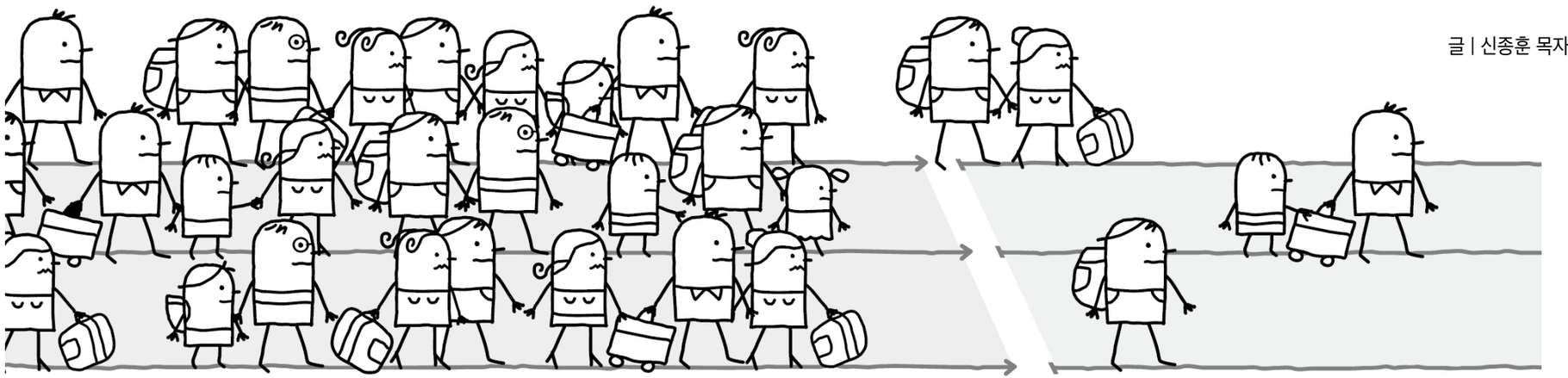
저는 제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목장의 섬김을 맡기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한 이후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증거를 하나씩 보여주셨습니다.

전임 목자님과의 친분으로 목장 모임에 출석하던 VIP 가정은 아이가 성경을 좋아하기 시작하면서 부모님께 성경에 관해 물어보는 바람에 통독 모임에 참여해서 성경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물어볼 때 대답하려면 알아야 한다는 것이 참석의 이유였지만 저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믿었습니다. 또 교인들과의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아 힘들어하던 목원가정은 통독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세밀하신 사랑을 배우며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어가며 관계를 회복한 간증을 나눠주시기도 했습니다.

연말 즈음에는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해보고 싶어하시는 가정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감동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해가 마무리 되어 갈수록 통독 모임을 나누는 시간은 점점 늘어갔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제목과 마음 나누기 또한 늘어났습니다. 팬데믹으로 단절된 세상과의 관계가 사실 목장 식구들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의 시기에 우리로 모이게 하시고 직접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은혜를 함께 경험하면서, 저희 목장 식구들 모두 한 차에 올라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성숙의 길 위를 달리고 있다는 확신이 듭니다. 그리고 그 길의 운전자는 모임의 섬김이인 제가 아니라 교회의 머리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또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글 | 신종훈 목자 (비제야와다 목장)



목자 헌신 예배 간증

하나님의 계획하신 시간

목자로 헌신을 결정한 뒤 제 삶을 돌아보니 과거부터 현재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셨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놀랄 만한 이벤트 같은 동기부여나 전환점이 있어서 목자의 직분을 감당하기로 한 것이 아니기에 더욱 저에 대해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세상의 기준으로는 무엇 하나 내세울 게 없는 사람입니다. 집안도, 학력도, 인격과 신앙까지 모두 변변치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의 삶은 참으로 평탄했습니다. 물론 저의 아내는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나름대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기는 했지만, 우리 가족에게 주신 평안함의 원인을 저와 제 아내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어머니의 기도입니다.

저는 어머니께서 제가 태어난 때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셨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양을 보면 제가 가끔은 힘든 일을 겪을 수는 있을지언정 극복하지 못할 일이 없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모태 신앙인으로 자란 저는 자신의 믿음이 성숙하기 전까지 어머니의 기도에 의지하는 작은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생각해보면 제가 하나님을 볼 수도 느낄 수도 없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람의 머리로 아무리 계획하고 노력해서 실행에 옮기더라도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일들을 제가 알지도 못하고 원하지도 않던 방향으로 바꿔주시는 일들에 대한 기억이 많습니다. 제가 계산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결과로 이

끌어 주셨던 경험도 있었습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시간과 방법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시면서 변하게 하셨고 믿음을 키우게 하셨습니다. 아내가 가끔 저에게 "사람 됐다" 라는 표현을 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성숙한 신앙을 키워가는 와중에도 저는 무겁고 힘든 직분 감당하는 일을 피해왔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일, 어렵지 않은 일을 선택적으로 했었습니다. 어느 순간 이러한 모습에 머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순종으로 더욱 믿음을 키워가고자 결단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의 생각으로 무언가를 계획하고 실행하려 해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2021년도 10월은 제가 처음 목자로서 헌신하겠다고 결심하고 목자님과 목사님께 말씀드린 지 약 3년이 지난 시간입니다. 3년 전의 나의 모습과 비교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제 안에 더욱 커져 있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헌신의 자리, 이 순간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어주신 자리와 시간임을 믿습니다.

'목자의 직분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지만, 앞으로 저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앞으로 제게 주어질 모든 일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어머니께서 기도로 저의 삶을 중보해주신 것과 같이 저 역시 기도로 목원들의 힘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죄 많은 우리들조차도 사랑으로써 자신을 몸을 희생하신 것처럼 저 역시 예수님 닮아가며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글 | 오경재 목자 (도미니카 목장)

내게 있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모장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몇 년이 지났습니다. 처음 목장을 시작할 때 저희는 나름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함께 드리는 예배가 있었으면 좋겠고, 어른들만 좋은 모임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믿음의 울타리를 세워줄 수 있는 목장이길 바랬습니다.

그래서 목장에서 크래프트를 준비해서 아이들과 말씀을 읽고 성경 공부에 공을 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좋아해서 보람은 있는데 제가 나눔 시간에 빠지다 보니 자매님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자매님들과 주중에 따로 만나 말씀을 읽고 교제도 했습니다. 수요 예배도 나가서 목원들을 위한 기도 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좋기는 했지만 제게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섬김에 의무감과 책임감이 반 이상을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숙제하는 기분으로 섬김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안 하면 불안하고 주어졌으니 해야 하는 숙제 같았습니다. 문제는 성실하게 숙제를 다 했으니, 상을 받거나 칭찬받기를 기대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할 일을 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몰라주시는 것 같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섭섭하고 화도 났습니다. 스스로 부족한 것 같으면 자책하게 되니 그것도 힘이 들었습니다. 섬김의 기쁨이 점점 줄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저를 기다려 주시고 생각지도 못한 크고 귀한 은혜들을 주셨습니다.

먼저는, 겸손의 지혜를 알려주셨습니다. 어느 주일, 목사님께서 '혼자서 다 하겠다는 생각은 교만이다.'라는 설교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서 목장 자매님들과 아이들 성경 공부를 번갈아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워하던 자매님들은 일단 시작하자 기대 이상으로 잘했습니다. 저는 교제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고, 아이들은 자기 엄마가 성경 공부를 인도하자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 일을 통해 저는 함께 나누어 일하는 것이 겸손이고 지혜라는 사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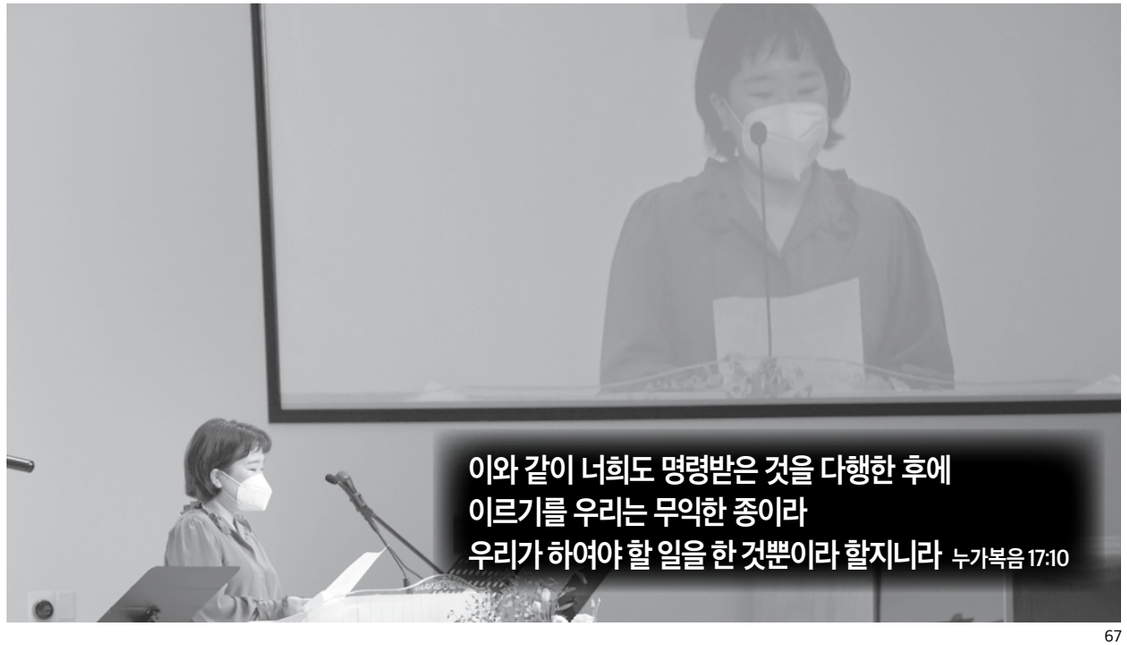
두 번째는 저의 20년 된 기도 제목을 이뤄 주신 것입니다. 목자로 섬긴 지 1년 후 여름, 한국에서 친정 부모님께서 우리 집을 방문하셨습니다. 부모님과 옐로스톤으로 여행을 가려고 예약해 두었는데 출발 하루 전날, 아버지께서 미끄러지면서 다리를 다치시는 큰일이 생겼습니다. 어렵게 정형외과를 예약해 방문했더니 뼈가 부러져 깁스는 안 되고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수술 날짜도 빨리 잡을 수 없었고, 수술을 한다 해도 부기가 가라앉을 때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 권사님께 침을 잘 놓는 한의원을 여쭤보려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저녁 권사님께서 우리 집으로 찾아와 저희 부모님께 맛있는 식사와 따뜻한 말씀으로 상심하신 부모님께 큰 위로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에는 목사님께서 심방해 아버지께 복음을 전해주셨고, 아버지는 기적같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습니다. 옐로우스톤과는 비교할 수 없이 아름다운 천국을 선물로 받으시게 된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은 지 20년 만에, 그리고 목장을 섬긴 지 1년 만에 주신 큰 은혜였습니다. 저희가 목장을 섬겨서 이 은혜를 주신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목자/부목자 훈련이 있는 날이었고, 목사님들 및 많은 분의 중보기도를 받을 수 있었기에 아버지의 마음이 열리는 데 큰 힘이 되었다고 믿고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분가의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저희 목장은 올해 초에 분가했습니다. 사실 한 번 여쭤보고 안 하신다 하면 굳이 나가시라고 할 생각은 없었는데, 기도해 보시더니 단박에 한다고 해서 처음엔 오히려 섭섭할 지경이었습니다. 함께한 시간도 있고, 많이 성장했는데 떠나보내려니 아쉽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또한 주님의 열매이지 저희들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분가의 기쁨도 누렸습니다.

반복되는 모임이 부담스러운 적도 있었고, 평가받는 기분이 들어서 싫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몇 년 지나면서 느낀 것은, 제가 일하는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켜보는 자리라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늘 저희를 보호해 주시고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잘 흔들리고 쉽게 두려워하고 자주 힘들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이유의 전부입니다.

글 | 한연선 부목자 (쿠칭 목장)



나에게 목장이란?

내영혼의 집이라고 답하고 싶다. 2002년 텍사스 휴스턴에서 미국 생활을 시작하며 목장을 접하게 되었다. 가족이 도착하기 전 홀로 주재원 생활하던 첫 토요일 아침, 누군가 호텔 방 문을 두드렸다.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던 계열사 직원이 따뜻한 커피와 도넛을 들고 "혼자 심심하시죠? 이것 드세요. 저도 지난해 첫 주재원 생활 시작할 때, 교회 목장 식구들을 통해 받았던 섬김이 정말 감사해서 그냥 그대로 따라 하는 것뿐이에요."라며 부끄러운 듯 전했다. 태어나서 이런 따뜻한 섬김을 처음 받았고 그 교회의 목장이 궁금해졌고 목장에 참석하게 되었다.

그렇게 시작한 목장 생활은 놀라움의 연속이었다. 목장이라는 단어 그대로 말과 양을 기르는 곳으로 알았다가 가정집에서 모이는 교회 모임이라는 사실에 당황했고, 근엄한 분위기의 성경공부가 아닌 맛있는 식사시간과 삶을 깊이 나누는 것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것에 당황했다. 부부는 물론 아이들까지 참여하는 가족들 모임인데 여느 사회모임과 달리 형식, 체면, 가식 등이 전혀 없었다. 겉치레와 이중생활에 익숙했던 나로서는 여러가지로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충격은 신앙생활이 깊고 오래된 장로님, 권사님 같은 분들일수록 더 낮은 자리에서 훨씬 어려운 일로 섬기는데 그 얼굴에서 비치는 행복 가득한 기쁨의 모습이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가정교회는 나의 온 삶을 흔들어 놓았고 30년 이상된 나의 신앙생활이 너무 부끄러워 초신자의 모습으로 되돌아가 처음부터 신앙생활을 다시 배워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이런 천국의 모형 같은 교회가 존재한다란 사실에 놀랐다. 결코 권위적이거나 이중적이지 않은 신앙의 리더들의 삶을 본받고 싶다는 마음에 신앙생활에 대한 더 큰 용기와 희망을 품게 되었다.

2006년 목자로 헌신하면서 목장 식구들을 통해 비로소 이것이 예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사랑'이었으며 나에게 베푸신 '용서' 였으며, 예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기다림'이었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받으셨던 '상처' 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기도'며 '기쁨'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목자의 삶은 성경 말씀 하나하나가 삶으로 다가와 경험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진정한 크리스천의 삶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이렇게 시작한 목장 생활과 목자로서의 삶이 이곳 실론 목장에 그대로 담겨져있다. 목장 식구들에게 더 나은 목자가 되어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이지만 누구보다 더 사랑하며 영혼을 담아 더 기도하면 할수록 목장 식구들에게 최선의 복은 목자 부목자가 되는 것이라 말하고 싶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동행하는 삶을 원하고, 성경의 모든 말씀이 자신의 삶에서도 역사하고 있음을 경험하길 원하고 약속하신 하늘과 땅의 복을 누리길 원한다면 말이다.

이렇게 보고 배운 대로 목장을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과 제자 양육의 열매, 그리고 메말랐던 목장 식구들의 삶이 아름답게 변화되는 열매를 맺게 해주셨다. 목장 식구들이 매주 돌아가면서 집을 개방하며 대접하고, 서로의 필요를 위해 섬기며 영혼을 담아 함께 기도하는 목장 생활이 익숙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자율 사역 기간도 없이 열심히 따라와 준 목장 식구들이 정말 감사하기만 하다.

목원들 중 기억에 남는 가정이 있다. 우선 그분은 결혼 전 약속 때문에, 20년간 예수님을 영접하지는 않으신 채로 교회를 다니시다가 단기 연수로 산호세에 오면서 우리 교회와 목장에 참석하게 된 가정이었다. 내가 했던 우려와는 달리 그 가정은 삶을 진솔하게 나누고 그 상황들을 통해 본인들의 감정을 깊이 나누며 마음을 오픈하게 되었다. 더욱이 목원들이 점점 변화되고 희생이 따르는 섬김에도 행복을 고백하는 모습과 서로를 위해 기도했을 때 이뤄진 응답들을 경험하며 그 가정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게 되었다. 그 가정이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던 날에 얼마나 기뻤던지 '이 기쁨이 바로 예수님의 기쁨이겠구나. 20년 동안 참고 기다리신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더 기뻐하실까?' 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올해 우리 부부는 한국에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연수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간 그 가정이 어떻게 소식을 들었는지 갑자기 연락이 왔다. 바쁜 생활 속에서 휴가를 내고 기꺼이 초대해주었다. 최선을 다해 섬기는 모습에 벅찬 감동이 밀려왔다. '주님 안에서 서로를 대접하며 사랑하고 섬기는 삶, 이것이 천국이구나' 그리고 '목장이 답이구나!'라는 고백이 절로 나왔다.

글 | 이정석 목자 (실론 목장)

가정예배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이사야 43:19**

새로운 직장으로 옮긴 지 딱 한 달이 지나고 그 어느 날보다 팀원들과 여유롭게 점심을 즐기던 3월, 팬데믹이 시작되었습니다. 기간이 길어지며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커졌습니다. 불편한 상황은 불만이 되고, 마음이 무거우니 몸이 아팠습니다. 오아시스 없는 사막을 걷는 기분이었으며 온 가족이 무한 질주하는 자동차들 사이에 아슬하게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20일이 지난 2020년 4월, 한국에 있는 가족들로부터 요양병원에 입원했던 아버님의 임종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가장 빠르게 입국해도 발인과 장례 일정을 맞출 수 없었고 해외 입국자들에 대한 규제로 아버님의 천국 가는 길을 배웅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였던 것 같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을 인정하고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족에게 동일하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예비하셨던 동역자를 통해 가정 예배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우리 가족의 예배를 기다리셨던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가정 예배의 중요성은 잘 알고 있었지만, 왠지 먼 이야기처럼 느꼈었는데 예배를 선포하고 시작하니 매우 자연스럽게 진행되었습니다. 저녁 식사 이후 찬양을 두 곡 부르고 남편은 기도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말씀은 성경 통독 순서대로 그날의 말씀을 소리 내어 읽었고, 각자에게 주신 말씀 구절을 나눴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주기도문까지 예배 후 서로를 축복했습니다. 예배 후엔 함께 산책하거나 보드게임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루하루 예배가 쌓이니 여러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늘 함께 계신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뉴스를 보는 습관이 있었는데 코비드 확진자와 폭동 등 어두운 소식으로 인해 걱정과 염려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배를 통해 담대함이 생기니 빛되신 예수님을 선포하는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었고, 찬양과 말씀이 뉴스보다 먼저가 되었습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기 시작한 것도 가정 예배를 통해서였습니다. 먼저 저는 회사 업무가 남편과 아이들에 관해 관심보다 앞서지 않았고, 남편은 대화를 통해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첫째 아이는 좋은 대학을 위한 기도 대신 신앙의 멘토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둘째 아이는 말씀을 읽고 나눔을 통해 이해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야 한다고 들어왔는데 직접 아이들이 변하는 모습을 보니 우리가 드리는 매일의 예배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인생의 가치관이 구별되고 있음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가정예배의 기쁨에 푹 빠져지내던 지난 2021년 2월, 저는 한국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자가격리 기간동안 영상으로 예배를 지속했지만, 이후에는 시간을 맞추기 어려웠습니다. 혼자 기도하고 말씀도 읽었지만 설명할 수 없는 허전함이 생겼고 가정예배를 드리지 못한 죄책감과 함께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그런 저를 하나님은 위로하시듯 남편의 한국 출장을 예비하셨고 온 가족이 한국에서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 일주년이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가족들과 만난 것도 기쁜데 다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감격스러워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님이 남기고 간 선물 같은 시간이었고 성령님이 임재한 감동의 예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팬데믹 기간 중 가정 예배를 통해 가족의 소중함과 삶의 우선순위 그리고 자녀들의 믿음까지도 회복시키시고 더욱 풍성한 은혜로 우리의 삶에 동행해 주셨습니다. 일상으로 돌아온 지금,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날도 있지만 예전처럼 불안하거나 죄책감이 드는 대신, 우리 가족을 기다리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다시 일어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글 | 방보경 (타이토 목장, 찬양팀)

가정 예배 순서

- 찬양
- 아빠 기도
- 말씀 읽기
- 나누기
- 기도
- 주기도문

1/1
성경통독의 해 '말씀 위에 굳게 서자' 표어로 새해 시작

산호세평원 총무 한광선 목자, 북부평원 노범준 초원목자임명

1/5
서리집사 232명 임명

1/11
제직 세미나

1/12
신년제직회

1/19
공동의회 2019년 결산 및 2020년 예산안 채택

1/22
상반기 첫 에녹평원 예배

1/26
첫 세례, 입교식
세례: 윤성, 입교: 전지은

2/1
가정교회 세미나2월 2일 영어 연합예배

2/4
상반기 첫 화요여성예배

2/11
성경학교 봄학기 개강예배

3/1
세례: 강헌식, 이승민, 정지연B, 유영진, 최선희, 차동준

3/15
코로나19 County 행정명령 대면 예배 중단 가정 예배로 전환

4/5
교회소식지 '언약호' 발간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 4:19)

[1-2월]

1/1
'Da Capo, 다시 구원의 노래를 부르자' 표어로 새해 시작

1/3
서리집사 175명 임명
임마누엘장로교회 스마트폰 앱 출시

1/9
제직 세미나

1/10
신년제직회

1/17
공동의회 2020년 결산 및 2021년 예산안 채택

1/20
상반기 첫 에녹평원 온라인 예배

2/6
여성예배 상반기 온라인 개강예배 북가주 지역 무료 코로나 테스트 실시

2/9
성경학교 봄학기 온라인 개강예배

2/21
의료봉사부 주관 이동흔 교수 초청 건강세미나

[3월]

3/6
가정교회 세미나 (3/6,3/13)

3/14
목자 임직 (정혜경, 박현미, Josh An)

3/20
직장선교 세미나

3/21
전도위원회 새가족부 바나바 세미나

3/29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 (3/29-4/3)

[4월]

4/1
'담물카페' 개설

4/2
성금요일 예배

4/4
코로나19 행정명령준수 전교인 대상 현장예배 재개

주일예배시간 변경 (1부: 8:00 2부: 10:00 3부: 12:00)

부활주일 세례, 입교, 유아세례
세례: 이승아
입교: 홍순학
유아세례: 강라엘, 박시헌, Alex, 박이도

중고등부 세례: Andrew Choi, Daniel Ko, Grace Kim, John Ryu
중고등부 입교: Chanhee Park, Claire Han, Erin Min, Janice Park, John Moon, William Choi

초등부 김하은 전도사부임

4/15, 18
북가주 밀알선교단 후원 참기름 바자회

4/21
수요예배 온라인으로 재개

4/24
이에이스더 전도사 '크리스천 자녀교육' 세미나

[5월]

5/1
Family Connect (5/1-5/31)

5/6
선교부 주관 '선교적 삶'온라인 세미나

5/16
입교: Aiden Rim

5/23
세례: 박세영

5/30
목자 임직: 한경희

2020

[6월]

6/28
온라인 선교세미나

6/1
말라위 온라인 단기선교 이산돌 목사
외 29명 (6/1-6/30)

6/16
인도 뉴델리 온라인 단기선교 송호영
전도사 외 3명 (6/16-6/18)

6/26
스리랑카 온라인 단기선교 조종연 목사 외 4
명 (6/26)

[7월]

7/14
교육부 온라인 여름성경학교 VBS
(7/17-18, 24-26)

7/4
키르기스스탄 온라인 단기선교 강창범 집사 외
14명 (7/4-7/7)

7/10
(7/10-30) M국 온라인 단기선교 김인환 목사
외 25명

7/11
교회 건물 재개방

7/14
수요예배 현장예배 재개

7/23
교육부 온라인 VBS 여름성경학교 (7/23-
24,30-31)

[8월]

8/16
상담사역부주관 김은영 교수 초청
온라인 세미나

8/2
멕시칼리 온라인 단기선교 최동명 집사
외 18명 (8/2-8)

프레즈노 단기선교 송호영 전도사 외
30명 (8/2-4)

8/7
가정교회 세미나 (8/7,8/14)

8/15
유아세례: 김로율, 김은호, 김지아,
남이삭, 백예훈, 신동원, 전은기

8/25
하반기 에녹평원 예배

8/29
세례: 이가호,이선희

유니스민 인턴선교사 니제르 파송예배

9/2
에녹평원 수요 온라인 모임

9/5
가을 학기 토요 여성 온라인 모임

9/8
온라인 성경학교 (가을학기)

10/3
손원배 담임목사 은퇴 감사예배

10/4
이정미 선교사 파송예배
교회소식지 '감사호' 발간

10/11
창립 40주년 박성호 담임목사 취임 및
장로권사, 집사 임직 예배

10/17
제 3차 소수민족 지도자 온라인 선교 세미나

11/1
김승균 교육목사 중고등부 담당 임명

11/13
상담사역부 주관 한성대 조난숙 교수 초청 온라
인 상담학교 (11/13, 11/20)

11/14
가정교회 세미나 (11/14, 11/21)

11/15
세례: 김현경B

12/6
영유아부 박은경 전도사가 부임
2021년 자원봉사 신청 및 온라인 사역박람회

12/14
Ted Kang 목사, 안상현 목사 초청
대강절 특별새벽기도회(12/14-24)

12/20
성탄감사 주일 세례, 유아세례
세례: 김주연D
유아세례: 이로운, 이현종, 장이나

12/20
목자 임직: 신종훈/신유진, 이시헌/김소라,
여환승/이지은, 한민호A/하영윤, 김병모/김인정,
성승철/임은아, 박창현/박영자, 김춘미B,
김폴/김영옥, 이준호/서지승, 전연실, 이정원,
고동휘, 김아름

12/31
송구영신예배

[9-12월]

9/1
T국 온라인 단기선교 우병삼 집사 외 4명
(9/1-11/31)

9/5
아이티 지진 피해자미국 내 아프간 난민긴급
구제헌금 모금
소그룹리더 임명: 윤상윤/윤은영,
이동흔/임정아, 조세일, 홍순학/조성화

9/7
하반기 화요여성예배

9/12
목자 임직: 김종윤/김동연, 박우정/정은주,
오경재/김미옥, 이택형/최선혜, 정돈희/윤민희,
최윤희, 김흥규/김숙자, 최정규/최혜랑

9/14
성경학교 개강예배 (가을학기)

9/17
목자 부목자 헌신의 밤

9/22
에녹 야외예배

10/1
목장연합 말씀 집회 (10/1, 2, 8, 15, 22)

10/2
VIP 초청잔치 노창수 목사 (남가주
사랑의 교회)

10/23
소수민족 지도자 세미나

10/24
목장 모임 시작

11/22
추수감사 주일예배

12/19
임마누엘 '구원호' 발간

12/19
성탄감사 주일 예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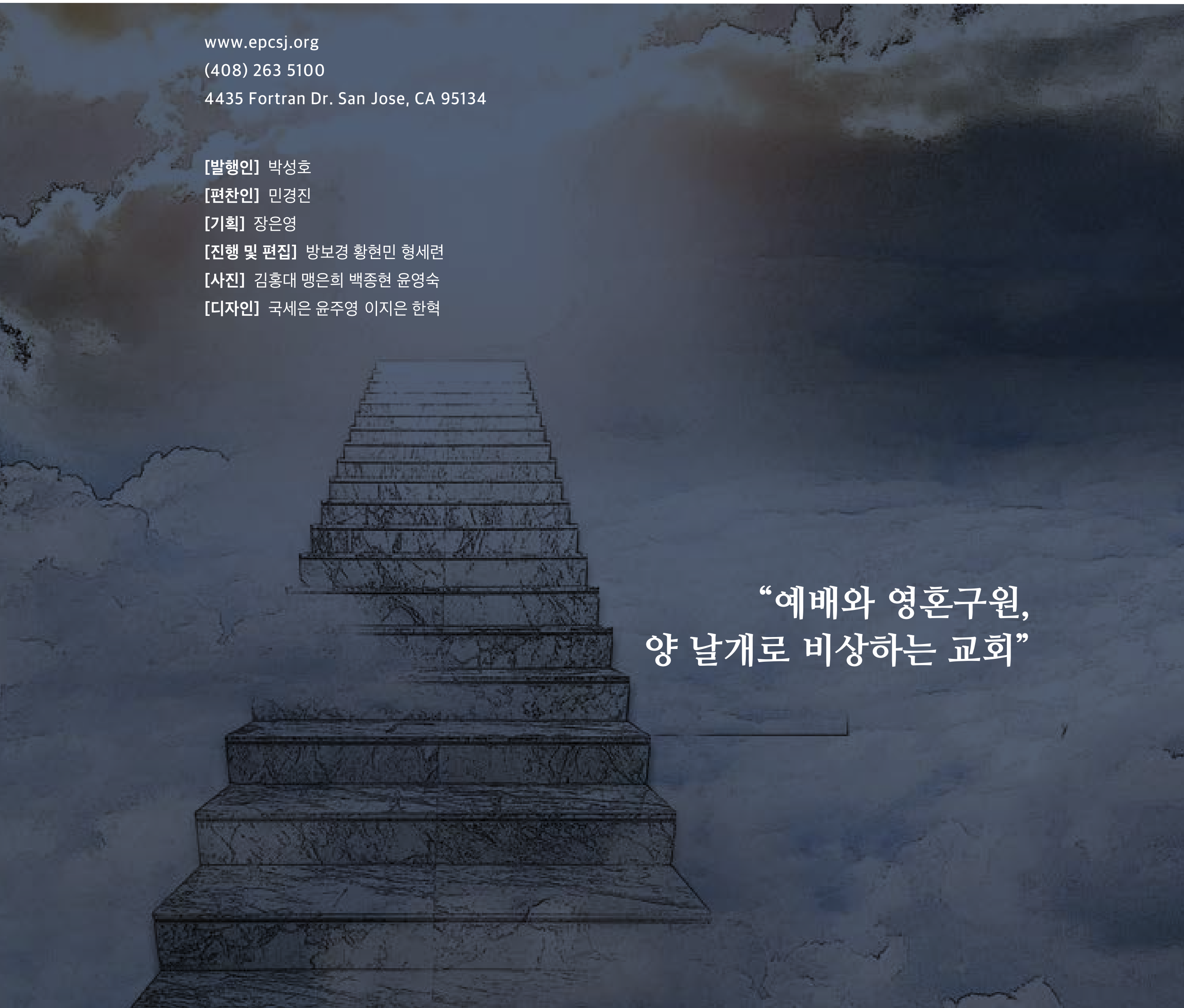
12/31
송구영신예배

2021

임마누엘장로교회
EMMANUEL PRESBYTERIAN CHURCH

www.epcsj.org
(408) 263 5100
4435 Fortran Dr. San Jose, CA 95134

[발행인] 박성호
[편찬인] 민경진
[기획] 장은영
[진행 및 편집] 방보경 황현민 형세련
[사진] 김홍대 맹은희 백종현 윤영숙
[디자인] 국세은 윤주영 이지은 한혁



"예배와 영혼구원,
양 날개로 비상하는 교회"